Global p/09

'동아저씨' 뺨친 '동아줌마'

Sports p/22

싫다! 애리조나 카우보이

정부, 10월말까지 불법사금융 집중 단속

정부가 서민에 피해를 주는 불법 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해 10월 말까지 검찰·경찰·국세청·금감원 등 관계 기관을 총동원해 일제 신고 및 집중 단속에 나선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서민생활 보호를 위한 불법사금융 일제신고 및 집중단속 계획'을 확정했다.

신고 대상은 불법 고금리, 불법 채권추심,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국민행복기금 신청 방해 행위, 불법 대부 광고 등으로 국번 없이 '1332번'으로 하면 된다.

대검찰청은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부를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해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경찰청은 16개 지방청, 250개 경찰서 소속 1800여 명 규모의 전담 수사인력을 중심으로 특별 단속에 들어갈 방침이며 국세청도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불법 사금융업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연합뉴스

붐비는 인천공항 최장 9일의 황금연휴를 즐길 수 있는 추석을 앞두고 12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이 해외로 떠나는 여행객으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우리도 광대역" 공수표 던진 U+

"가입자 이탈" 조바심에 망구축 계획도 없어 서비스 공언 업계 "경쟁 뒤처지자 무리수"

LG유플러스의 상황이 그야말로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지난달 진행된 주파수 경매에서 2.6GHz 대역을 확보하며 경쟁사보다 광대역 LTE 서비스에서 뒤처진 LG유플러스가 12일 열린 광대역 LTE 구축 방안 기자간담회장에선 대리점주들의 난입과 욕설로 10여 분간 행사가 중단되는 등 시끌을 앓았다.

LG유플러스는 이날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행사에서 연내 서울과 수도권을 시작으로 내년 3월부터 광역시, 내년 7월부터 전국에 광대역 LTE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사실 이날 LG유플러스의 광대역 LTE 서비스 발표는 시작부터 의혹의 눈초리에 휩싸였다. 주파수 경매 이전만 해도 KT가 1.8GHz 인접 대역을 확보하면 망할 것처럼 떠들었던 LG유플러스가 이날 행사에서는 "기존 800MHz 전국망 구축 경험을 기반으로 시일을 단축할 수 있었다"고 말을 바꿨기 때문이다. 특히 구체적인 망 구축 계획도 내놓지 못해 뒤늦은 광대역 LTE 대응에 따른 가입자 이탈을 막기 위해 무리수를 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KT와 SK텔레콤이 광대역 LTE 전략을 발표하자 초조한 LG유플러스가 구체적인 준비 없이 우리도 곧 서비스를 하겠다고 약속한 데 불과해 보인다"면서 "구체적인 투자 비용도 밝히지 못한 데다 향후 몇 년 뒤 서비스 경쟁사와의 속도 비교만 늘어놓은 보여주기식 간담회"라고 비난했다.

'앙꼬 없는 찐빵' 같던 간담회는 시작 20분 만에 대리점주들이 행사장에 난입하는 파행까지 겪었다. LG유플러스 피해자 모임(일피모) 회원 40여 명이 "LG유플러스가 주파수를 확보한 것을 자축하는 잔치를 연다고 해서 왔다"며 "우리의 피와 땀으로 이뤄진 돈으로 잔치하겠다는 건데 이 행사 진행 못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 행사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이들은 "LG유플러스가 가입자 유지를 위해 각 지역 유지들과 젊은 계약직 지원들, 협력업체 등에 온갖 협박과 감언이설로 대리점을 개설하고 영업을 강제했다"면서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온갖 불법적 영업을 강요하는 한편, 오버런딩(본사지급수수료 이상의 비용을 지불하고 가입자를 사오는 행위)을 시켜 점주들의 가족과 친척까지 빚을 지게 됐다"고 주장했다. 일피모 주장에 따르면 300여 개 대리점의 총 피해액만 4년간 500억여 원에 이른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법원 소송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고 대리점주들과 협의도 진행 중"이라며 "대리점주들이 주장하는 배상 기준도 모호하다. 자신들이 영업 과정에서 입은 손해를 모두 보상하라는 것인데 그건 너무하지 않으냐"고 토로했다.

/이재영 기자 ljy0403@metroseoul.co.kr

'목숨 건 예능' 보고싶지 않다

기자 수첩
탁진현
<연예스포츠부 기자>

출연자들의 줄부상으로 논란을 빚은 MBC '스타 다이빙쇼 스플래시'의 조기 폐지는 예상된 결과였다. 대다수가 급하게 투입되면서 다이빙을 충분히 연습할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고, 이로 인해 안전사고의 위험성은 방영 전부터 열려있었다.

첫 방송에 앞서 지난달 만난 인호는 "다이빙 연습을 하다 수면에 잘못 부딪히는 바람에 다쳤다. 부상을 입고 나니 다이빙대에 오를 때마다 두렵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클라라 역시 "고소공포증이 있는데 매일 전쟁터를 다지는 바람에 오래 앉아있기가 힘들다"며 고통스러워했다.

안전사고의 가능성을 모를 리 없었다는 점에서 제작진은 시청자들의 눈길을 끌기 위해 연예인들을 사지로 내몰았다는 비난을 피하긴 힘들어 보인다.

연예인들의 극한 체험을 통해 한계를 극복한다는 진정성을 보여주겠다던 취지는 좋았다. 그러나 다친 몸으로 괴로워하는 연예인들과 이들의 줄부상 소식을 전해야 하는 팬들에게 그 취지라는 건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시작조차 안 했으면 좋았겠지만, 이쯤에서 막 내리길 그나마 다행이란 생각이 든다. 중견 연기자 고 김성찬이 오지 체험 프로그램 녹화 중 말라리아에 걸려 사망했고, 성우 고 장정진이 게임 도중 떡이 목에 걸려 어이없이 세상을 떠났던 전례를 떠올리면 더욱 그렇다.

앞으로 체험 예능 프로그램을 만들 제작진에게 '스플래시'의 폐지가 반면교사로 남아 비슷한 일이 반복되지 않기만을 희망한다.

"떡메치기 재밌어요"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은행나무공원에서 열린 '한-놀 어린이가 함께하는 추석 전통놀이 한마당'에서 어린이들이 떡메 치기를 하고 있다. /뉴시스

"간다" 2시간만에 "안가"

당정, 해수부·미래부 세종시 이전 발표했다 번복 … "부산 눈치보기"

새누리당과 정부가 해양수산부와 미래창조과학부를 정부세종청사로 이전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가 하루 만에 뒤집어 혼선을 자초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12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통해 해수부·미래부의 정부세종청사 이전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안행위 새누리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은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당정 협의에 이어 종합적인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며 "연말까지 이전이 마무리되도록 의견을 모아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 의원의 기자회견은 2시간여 만에 뒤집혔다.

당 정책위는 보도자료를 내고 "해수부와 미래부의 세종시 배치를 확정한 바가 전혀 없다"며 "이 문제는 공청회 등을 거쳐 충분히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선 행안부와 당정 협의 결과를 사실상 번복한 것이다.

당 안팎에서는 해수부의 유치를 기대하던 부산의 지역 정치권과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을 고려했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어린이날도 대체휴일제 확정

한편 당정은 이날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치면 이어지는 평일 하루를 더 쉬는 대체휴일제를 현재 설과 추석에 이어 어린이날에도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설·추석은 공휴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면 대체휴일이 주어지지만 어린이날은 공휴일·일요일에 더해 토요일과 겹쳐도 대체휴일이 부여된다. 대체휴일 도입으로 연평균 휴일은 1.1일 증가하게 될 전망이다.

취득세 영구 인하에 따른 지방재정 손실 문제와 관련해서는 손실을 전액 국비로 보조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김유리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훈련보다 더 긴박한 취재 추석 연휴를 앞둔 12일 오후 서울경부고속도로 만남의 광장에서 소방방재청, 고속도로순찰대, 대한가과학회 등 유관 기관이 고속도로 응급 의상환자 불기구조 훈련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서 3자회담하자" 거부한 민주당

입 가린 김한길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1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내 자신의 사무실로 향하다 취재진으로부터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 일방 제안 유감"

해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박근혜 대통령이 여야 대표와 3자 회동을 전격 제안했다.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12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과 베트남 순방 결과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국회를 방문, 국회의장단과 여야 대표들을 만나 상의하면서 국정에 반영되도록 하고자 만남을 제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 이후 연이어 여야 대표 3자 회동을 통해 국정 전반의 문제와 현재의 문제점 등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대화에 임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현직 대통령이 청와대가 아닌 국회에서 여당과 정국 관련 회담을 하자고 제안한 것은 처음이다.

청와대는 추석을 앞둔 16일쯤 박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 3자 회동이 이뤄지길 바라는 입장이다. 추석을 앞두고 민심의 전환점을 만들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이 대승적 차원에서 박 대통령의 제안을 수용하는 결단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민주당은 청와대의 일방적인 회동 제안 발표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회동 제안 배경과 의제 등을 추가 확인한 후 당 공식입장을 정리하겠다"며 의견 표명을 미뤘다.

/김유리기자

교통상황도 날씨처럼 예보

내년 도시고속도로 시범

내년부터 서울 도시고속도로 교통상황을 일기예보처럼 예측, 대응할 수 있도록 한 교통예보가 도입된다.

서울시 교통정보센터는 12일 'TOPIS 3.0 시대'를 선언하며 빅데이터를 활용해 다음달 교통 상황을 미리 보는 교통예보 기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교통정보센터는 지난 10년 이상 누적된 빅데이터를 활용해 도로 통행 패턴을 분석, 주말 교통 상황을 예보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서울 도시고속도로에 시범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장기적으로 모든 도로에 대해 30분, 1시간, 1일 단위로 예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교통정보센터는 또 재난상황실과 협업을 통해 영상장비 849대를 통합 관리하면서 교통 전광판에 차량 흐름과 하천 수위, 폭우, 폭설 등 재난 상황을 함께 볼 수 있게 제공한다고 밝혔다. /김유리기자 grass100@

민간인 불법사찰·알선수재 박영준 징역 2년 원심 확정

민간인 불법 사찰을 지시하고 파이시티 인허가 알선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준(53)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는 12일 직권남용권리행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차관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9478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건호기자

채동욱 "유전자 검사 조속히 실시하겠다"

정정보도 청구소송도 제기

조선일보에서 제기한 '혼외자식 의혹'과 관련해 채동욱 검찰총장이 12일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채 총장은 "지난 9일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 정정 보도를 청구했으나 유감스럽게도 오늘까지 정정 보도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조선일보 보도 의혹의 조속한 해소를 위해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및 중재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다 신속한 의혹 해소를 위해 소송과는 별도로 유전자 검사를 조속히 실시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면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개인적으로 선임한 변호사가 조선일보 측과 협의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친일 독재 미화 뉴라이트 교과서 무효화 국민네트워크 회원들이 1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무효화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친일 국사 교과서' 발행 안할듯

교학사 "집필진 설득 중"

교학사가 친일 및 독재 미화 사실 왜곡 표절 논란을 빚는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발행을 취소하기 위해 집필진을 설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학사 관계자는 12일 "발행 포기를 포함해 모든 경우의 수를 염두에 두고 있다"며 "다음주 중 공식적인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제 교학사 대표가 살해 위협을 받고 직원에게도 너러 수준의 협박 전화가 온다"며 "교학사는 일개 출판사일 뿐 사상 논쟁을 벌이는 곳이 아니다"고 하소연했다.

교학사 측은 출판사의 다른 교재에 대해서도 불매운동 반품 등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출판 포기 등을 포함한 방안을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에게 설득 중이다.

교과서 집필진은 출판사 입장을 이해한다면서도 교과서가 출판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한편 민족문제연구소 역사정의실천연대 평화박물관 등 465개 시민단체는 이날 '친일 독재 미화 뉴라이트 교과서 무효화 국민네트워크'를 출범시키고 교학사 교과서 퇴출 운동에 돌입했다. /손승락기자

오늘의 역사 Today in History

그림 박상철

미켈란젤로, '다비드상' 조각 시작

1501년 9월 13일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의 거장 미켈란젤로가 피렌체에서 '다비드상'을 조각하기 시작했다. 세계 조각상 중 가장 거대하고 유명한 누드인 '다비드상'은 원래 다른 조각가들이 손을 대다 만 채로 25년 동안 방치된 어정쩡한 상태의 대리석이었지만 26세의 청년 미켈란젤로가 이전의 여성적인 다비드상과는 다른 조용한 위엄과 미묘한 균형의 이상적인 청년 다비드를 3년 만에 창조했다. 이 조각에는 즉시 '거인'이라는 별명이 붙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거인은 성경에서 바로 이 다비드가 돌팔매로 쳐 죽인 '골리앗'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복지 유령' 앞으론 없다

수급자 사망하면 급여 자동중단… 이달 중 전산망 정비

앞으로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이 사망하면 자동적으로 급여가 중단된다. 또 2000만원 이하로 발생한 이자 소득도 기초생활수급자 산정 기준에 반영하는 등 복지급여 자격 요건도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기능 및 부정수급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안전행정부로부터 주민전산망의 사망자 정보,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인 등급 판정 정보 등을 모두 받아 9월 말까지 사망자 장애인 복지 수급 자격을 일제히 정비한다.

10월부터는 아예 사망 신고와 함께 주민전산망에 사망자로 등록되면 자동으로 해당 수급자에 대한 모든 급여 지급을 중단한다. 만약 허위 신고 등으로 부당하게 급여를 받은 게 확인되면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년 하반기까지 기안 소득인정액 산정 시 2000만원 이하로 발생한 이자 소득도 소득에 반영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수급자의 소득·재산 정보가 바뀔 경우 지자체 담당자가 바로 사실을 파악할 수 있도록 '변동 알림' 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했다. /박지원기자 pjw@metroseoul.co.kr

지하철 승객 15% 무임승차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해 예산결산안을 분석한 결과 지하철 이용자 24억1084명 가운데 15.4%인 3억7202만 명이 무임승차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12일 밝혔다.

지하철 무임승차 승객 비율은 2010년 14.9%에서 2011년 15.2% 2012년 15.4%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지역별로는 광주시가 32.5%로 가장 높았고 부산 24.6%, 대구 22.3%, 대전 21% 순이었다.

부촌 제대군인 취업지원 행사

부산지방보훈청(청장 유주봉)은 지난 10일 중장기복무 제대군인들의 취업 지원을 위한 기업 현장 탐방 프로그램인 '부훈 렛츠(Let's) 보고, 잡(Job)고!'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강호 강사(전임 한진중공업 기술교육원장)의 강의를 시작으로 (주)나라코퍼레이션, (주)김남, (주)선진엔텍 등 우수 중소기업체를 방문, 현장을 둘러보고 현장 면접도 실제 진행됐다.

부산은행 대학생 홍보대사 'BS프렌즈 8기 발대식 가져

부산은행은 지난 11일 올 하반기에 활동할 '제8기 대학생 홍보대사 BS 프렌즈'를 선발해 발대식을 갖고 연말까지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제8기 부산은행 대학생 홍보대사(BS 프렌즈)는 이날 발대식을 시작으로 4개월간 부산을 비롯해 울산, 창원, 진주, 김해 등 총 11개 팀으로 나뉘어 사회봉사 활동과 은행 홍보 활동을 펼치게 된다.

주요 활동으로는 봉사 활동, 부산은행 상품 안내 홍보 및 캠퍼스 내 다양한 축제에 참여하는 등 홍보대사 스스로가 활동을 기획하고 추진해나간다.

이번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부산은행은 매월 소정의 활동비 및 필요한 각종 비용 등을 지원한다.

부곡중 등 9개교 200명 '금정산 지킴이' 나섰다

부산지역 청소년들이 오는 14일 '아름다운 금정산 살리기' 자연보호 활동에 나선다.

이들 청소년들은 부산의 진산 금정산을 아름답고 깨끗하게 보존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매월 둘째 주 토요일에 자연보호 활동을 펼친다.

부산시는 청소년들에게 부산의 진산 금정산의 자연자원 보존과 생태 복원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자연의 소중함을 직접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연보호 행사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부곡중학교 등 9개 학교 200여 명이 금정산 동문~산성고개, 남문, 동문~3망루 등에서 쓰레기를 줍고 지정 등산로 이용 및 자연 훼손 행위 계도 캠페인 등을 펼칠 예정이다.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새문로 2가 1 141,142
TEL 02)721-9800 FAX 02)730-1861

발행 인쇄인	남 궁 호
사회 편집인	김 귀 학
편 집 국 장	조 인 호
부산지사장 직대	김 덕 준
서울광고문의	02)721-9851~3
부산광고문의	051)638-2100
독 자 센 터	02)721-9811

2002년 5월 9일 등록 서울특별시 ...

디자이너 샛별들 '500개의 멋' 발산

2013 대학패션 페스티벌 13~15일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서 열려

부산지역 유망 신인 디자이너 발굴을 위한 '2013 대학패션 페스티벌'이 13일부터 15일까지 사흘간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 9층 문화홀에서 열린다.

부산지역 대학 예비 패션 디자이너들의 창의적이고 생동감 있는 예술적 아이디어 교류 및 경쟁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해 마련된 이 페스티벌은 부산지역 8개 대학 연합 패션쇼를 시작으로 화려하게 펼쳐진다.

이번 행사는 부산시 주최, (재)부산경제진흥원 주관으로 부경대·동의대·부산경상대·동아대·신라대·동명대·경성대·동서대 등 8개 대학의 졸업생 260여 명이 참가해 500여 점의 다양한 의상 콘셉트와 패션쇼 테마로 졸업 작품을 선보인다.

올해 대학패션 페스티벌은 세계 최대 규모의 백화점인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에서 장소를 제공해 참가 학생들의 자긍심과 경쟁력을 한층 더 높여줄 뿐 아니라 시민들의 관람도 용이할 전망이다.

행사장에는 또 학생들의 작품 스케치, 구상 아이디어 등을 전시하는 졸업 작품 스타일화 전시회 및 학생들의 다양하고 독특한 창작품인 패션 액세서리, 소품 등을 현장에서 판매·교류하는 패션 프리마켓도 부대 행사로 운영된다.

개막식은 첫날 13일 오후 2시 이영활 경제부시장을 비롯한 참여 대학의 총장, 기관장, 여성단체장 등 부산의 섬유·패션업계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오프닝 연회 패션쇼를 시작으로 부경대와 동의대의 패션쇼가 진행된다.

이어 14일에는 부산경상대·동아대·신라대, 15일에는 동명대·경성대·동서대 순으로 패션쇼가 이어지며 일반시민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대학패션 페스티벌이 졸업 작품 발표회의 단계를 넘어 신진 디자이너 데뷔 및 발굴 디딤돌 역할을 해 부산 섬유·패션 산업 발전을 견인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뉴시스

25개대 동아리 끼·열정 모여!

13일 아시아드경기장 등서 '대학종합축제한마당'

부산지역 '대학종합축제한마당'이 13일 아시아드 보조경기장과 사직실내체육관 등에서 펼쳐진다.

올해로 7회째를 맞는 이 행사는 지역의 젊은 지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합과 우정을 나누는 축제의 장이다.

부산시와 부산대학교가 공동 주최하고 부산시생활체육회가 주관하는 이날 행사는 부산지역 25개 대학에서 선수, 동아리 회원, 임원, 운영요원 등 3000여 명이 참가해 체육 민속 경기를 비롯해 가요, 댄스 경연대회 등 동아리 축제한마당 등이 열린다.

이날 오전 9시부터 아시아드 보조경기장에서 식전 행사로 4000여 명이 참여하는 대학 연합응원단 치어쇼 공연으로 축제 분위기를 돋운 뒤 김종해 부산시 행정부시장, 김기섭 부산대학교 총장 등 25개 대학 총장 및 선수들이 참가한 가운데 개회식을 갖고 본격적인 축제에 돌입한다.

체육 경기는 축구, 농구, 족구, 검도, 발야구, 탁구 등 6개 종목에 16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아시아드 보조경기장, 실내체육관, 부산시체육회 체육회관 등에서 열린다.

축구는 지난 6일 을숙도 축구장에서 벌인 예선전에 이어 이날 오전 11시 결승전을 갖는다.

아시아드 보조경기장 트랙에서는 민속 경기인 줄다리기와 한동 줄넘기를 진행하고, 사직실내체육관에서는 동아리 축제한마당인 가요 경연대회와 댄스 경연대회가 열려 젊음의 끼와 재능을 발산하게 된다.

이번 축제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는 경품 추첨을 통해 노트북, 태블릿, 갤럭시노트, PC, 자전거 등 대학생들이 선호하는 다양한 상품도 주어진다.

백두대간 자연송이 납시오~ 2일 서울 이마트 용산점에서 모델들이 '백두대간 자연송이'를 소개하고 있다. 이마트는 8일까지 중국 길림성 무산 돈군 해발 1500m 산간 청정지역에서 채취한 '백두대간 자연송이'를 500g에 16만9000원, 1kg에 34만9000원으로 판매한다. /연합뉴스

명절 앞둔 소외층에 6억2500만원 지원

부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부산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여장권)는 올 추석 명절을 맞아 부산지역 소외계층 3만여 명에게 총 6억2500만원을 지원한다.

공동모금회는 수급 가구, 차상위 가구, 단독세대 어르신, 재소자 가정, 결핵 환자, 쪽방 거주민 등 취약계층 총 1만2000여 세대 및 취약 사회복지시설과 노숙인 무료급식소 등 3만여 명에게 명절지원금 및 차례상 비용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추석에는 ▲저소득계층 명절 지원금(세대별 5만원) 총 5억5000만여 원 ▲소외계층 긴급생계비(세대별 5만원) 총 5000만여 원 ▲사회복지 시설 5곳 공동차례상 각 100만원씩 총 500만원 지원 ▲노숙인 무료급식소 8곳 추석 음식비 총 2000만여 원이 지원된다. 부산 사랑의열매 이정은 사무처장은 "민족 대명절 추석을 맞아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정을 느끼고 함께 풍요로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중복 지원이나 누락이 없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성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소매상인 추석특수 '실종'

부산상의 "올해 예상매출액 전년비 2%대 감소"

추석을 앞두고 경기 부진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부산 소매유통업 등의 매출 감소가 예상된다.

12일 부산상공회의소는 부산 소매유통업 추석 성경기동향 조사 결과 올해 추석 기간 지역 소매유통업계 예상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1%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지난해 추석 기간의 예상 매출 증가율(2.7%)과 비교해서도 4.8%포인트 감소한 것이다.

이처럼 추석 기간 동안 지역 소매유통업계의 예상 매출액이 감소할 것으로 나타난 이유는 장기화 되고 있는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소비심리가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실제 경기침체로 중산층의 소비가 위축되면서 백화점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5.4%나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대형마트와 슈퍼마켓 역시 전년 수준에 머무르거나 소폭 증가할 전망이다. 그동안 경기 불황 속에서도 편리함과 실용성으로 인해 매년 꾸준히 증가해왔던 상품권 판매액 역시 지난 2003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실제 백화점의 경우는 5만원 이상의 중고가 상품이 전체 선물세트 매출의 70.9%로 주류를 이룰 것으로 보이며 대형마트와 슈퍼마켓은 5만원 미만의 중저가 상품의 매출 비중이 각각 70.7%, 83.3%로 대다수를 차지할 전망이다.

1만 피서객 구조 '해변의 슈퍼맨'

부산 해수욕장 '119수상구조대' 올해 임무완수 102일만에 해단식

2007년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많은 4000만 명이라는 사상 최대의 인파가 부산의 해수욕장을 찾은 가운데 '119수상구조대'가 피서객들의 안전 지킴이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102일간의 운영을 마무리했다.

119수상구조대는 지난 6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102일간) 해운대 등 부산권역 7개 해수욕장에서 시민의 안전지킴이로 활동했다. 올해는 2004년 해이뤄지관 이유으로 시작한 수상구조 업무가 10주년인 해로, 역대 최다인 소방공무원 170명, 자원봉사자 242명 등 총 412명의 인력과 90종 2535점의 수상구조장비가 동원됐다. 이번 운영 기간 동안 119수상구조대원들에 의해 932명이 구조됐고 2202명이 응급처치 혹은 긴급후송 됐다. 또 기타 안전 조치 5716명, 미아 처리 133명 등 총 6190건 1만773명에 달하는 피서객의 안전을 지키는 데 기여했다.

특히 올해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이안류가 발생했으나 인명 피해 없이 235명이 안전하게 구조됐다. 그리고 바다의 이상고온현상으로 다량의 해파리 개체 수가 해수욕장으로 유입됐으나 해파리 차단 펜스 설치로 인해 전년도에 비해 해파리 쏘임 환자(237명)가 86%나 감소했다.

아울러 각 해수욕장에 간호사 및 응급구조사 종원 배치 등 바다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해 운영한 결과 이안류 발생, 해파리 피해 증가에도 불구하고 안전한 해수욕장을 만드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또한 부산시 소방안전본부는 ▲전국 물놀이 안전지킴이 발대식을 부산에서 개최하는 등 해양 도시로서의 인지도와 브랜드 가치에 기여 ▲국민 안전을 위한 주요 업무로 119수상구조 업무가 선정돼 국회보 등 각종 언론에 홍보되는 등 소방 위상 제고 ▲해수욕장 안전관리 융합 행정으로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등 8개 기관(단체)과 협의체를 조직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앞장섰다.

부산시 소방안전본부 119수상구조대는 올해 해수욕장 폐장과 동시에 '2014년 해수욕장 안전관리 준비체제'로 전환했다.

119수상구조대 운영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우수 사례는 더욱 발전시키고 미비한 부분은 보완해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상인명구조기술 개발·연마 ▲수상구조장비 보강 ▲바다응급의료체계 보완 ▲유관 기관 공조 체제 강화 등 그동안 쌓아온 장비운용 기술, 인명구조 기술 및 안전관리 노하우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해 부산지역의 해수욕장 어디서나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세이프&릴렉스 비치'를 만들어나갈 방침이다.

/정하균 기자 jhk@metroseoul.co.kr

13·14일 '유니브엑스포 부산' 부경대 대연캠퍼스서 열려

부산지역 대학생의 다양한 대외 활동 정보 공유의 장인 '2013 유니브엑스포 부산'이 13일과 14일 양일간 부경대학교 대연캠퍼스에서 열린다.

유니브엑스포는 대학생들에게 다양한 학교 밖 대외 활동 정보 교류 및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행사로 2010년 서울에서 처음 개최된 후 부산에서는 2011년부터 올해로 세 번째를 맞는다.

'대학 생활 나를 세워라 날을 세워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연합 동아리 및 기업 단체 등의 대외 활동 체험 프로그램 운영, 다양한 주제의 유명 인사 강연, 취업 및 창업을 위한 컨설팅 등 대학생들의 성공과 취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특히 올해는 도전에 대한 성공 또는 실패가 현재 자신의 가치관이나 모습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주제로 하는 '대학생의 도전 스토리텔링 공모전'을 마련해 대학생들의 열정과 패기에 기반을 둔 도전정신을 공유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허남식 부산시장이 유니브엑스포 부산 조직위 명예위원장을 맡아 다양한 지원을 통해 행사를 응원한다.

다음달 8일 '울산 엑스포' 중소기업 수출 상담회 개최

울산시는 12일 울산경제진흥원과 함께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 도모 및 해외시장 판로 개척 확대를 위해 10월 8일 남구 롯데호텔에서 '울산 엑스포 플라자(Ulsan Export Plaza) 2013' 수출상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행사에 초청되는 해외 바이어와 일대일 비즈니스 상담을 희망하는 지역 중소기업체를 24일까지 모집한다. 초청되는 해외 바이어는 코트라 해외무역관, 동아시아경제교류추진기구, 해외 민간단체를 통해 모집한 11개국 27개사 중 지역 중소기업 수요 조사로 자동차·화학·조선·기계 등 분야에 구매력이 있는 우수 바이어 34개사다.

비즈니스 상담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홈페이지(www.uepa.or.kr)의 공지사항을 참조해 신청하면 된다. 홈페이지에서 상세 바이어 리스트도 확인 가능하다.

부산아쿠아리움 락톱 '가을 갯바위 체험하세요' 갯바위 체험 락톱 부산아쿠아리움은 12일부터 가을 갯바위 사계절 갯바위 체험을 할 수 있는 락톱을 가을 분위기로 연출하고 다양한 이벤트를 선보이고 있다. /부산아쿠아리움 제공

마을버스 엔진과열 '화재'

12일 부산 남구의 한 마을버스 차고지에서 주차된 마을버스에서 엔진 과열로 추정되는 불이 났다.

불은 버스 엔진 등을 태워 50만 원(경찰 추산)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내고 10여 분 만에 진화됐다.

경찰은 버스 주차 당시 엔진에서 타는 냄새가 났다는 운전기사 이모(54)씨의 진술과 엔진 부위에서 불꽃이 피어오르는 모습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엔진 과열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market index <12일>

코스피	2004.08	(+0.21)
코스닥	529.58	(+0.24)
금리	2.91	(-0.03)
환율	1084.50	(-1.00)

차례상 비용 지난해보다 2% 감소

추석 차례상 비용이 지난달보다 2% 내려갔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지난달 말부터 11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추석 차례상 마련 비용을 조사한 결과 11일 가격이 지난달 말보다 약 2%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나물·사과 등 23개 제수 음식의 주재료 가격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11일 가격은 전통시장 18만2702원, 대형유통업체 25만6808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달 28일보다 전통시장 가격(18만5215원)은 1.4%, 대형유통업체 가격(26만2941원)은 2.3% 하락한 수치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 관계자는 "최근 채소류와 과일류의 출하 물량이 증가하고 정부의 추석 성수품 공급 물량도 늘어나 차례상 비용은 앞으로 더 내려갈 전망"이라고 말했다. /전효혜기자 unique@

뉴스&뉴스

SKT 동영상 전용 요금제 출시
SK텔레콤이 월 9000원에 스포츠 중계 등 동영상 서비스를 1일 2GB씩 한 달 31일 기준 최대 62GB까지 이용할 수 있는 동영상 전용 요금제 'T라이트'를 출시했다. /SK텔레콤 제공

주택청약 연령 19세로 낮춰

●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연령이 현행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1년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으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규칙 제4조는 20세 이상인 자에게 민간 건설 중형 국민주택 중 분양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하도록 돼 있다. 적용 주택은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중 분양주택과 민영주택이다. /연합

한국거래소 주문지연 사고

● 12일 한국거래소의 주문 시스템에서 오류가 발생해 일부 종목의 거래 체결이 지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올 들어서만 세 번째다.

이날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55분 동안 국내 유가증권시장 상장 종목 27개와 상장지수펀드(ETF) 3개, 신주인수권 2종, 주식워런트증권(ELW) 151개의 거래 체결이 지연을 빚었다.

사고는 오전 10시25분쯤 정상화됐다. /김현정기자

코스피2000 앞 펀드족 갈팡질팡

美 양적완화 축소 우려 최근 1조 넘게 순유출
치솟는 증시에 재가입 고민… 전문가도 '팽팽'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우려에 펀드를 환매했던 투자자들은 코스피가 이틀째 2000선을 넘는 등 급등하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더 오르지 않을 것으로 보고 환매했는데 예상보다 지수 상승세가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증시 전문가들은 아직 펀드를 환매하지 않은 투자자들에 대해 "양적완화 축소가 단행되면 주식시장의 강세가 예상된다"며 펀드 보유를 권하는 쪽과 "여전히 글로벌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다"며 신중한 투자를 권하는 쪽으로 의견이 갈렸다.

12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상장지수펀드(ETF)를 제외한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는 2742억원이 빠져나갔다. 개인 비중이 높은 공모형 펀드에서 1751억원, 사모펀드에서 991억원이 각각 순유출됐다.

하루 만에 이 같은 자금이 이탈한 것은 지난 2월 21일 4294억원 이후 반년여 만에 가장 큰 규모다.

게다가 이때까지 10거래일 연속 순유출된 점을 고려하면 열흘간 이탈한 자금은 1조1272억원에 달한다. 이 같은 순유출 행진 역시 지난해 말 17거래일 연속 순유출세를 보이고서 8개월여 만의 최장 기간이다.

코스피가 조금씩 오를 때마다 펀드 보유자들이 환매에 나선 탓이다. 투자자들이 환매에 나서는 지수 수준은 1950선 이상이 가장 많고 1925~1950선, 1900~1925선 순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코스피가 다시 2000선을 회복하면서 더 오를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이 많았다. 펀드에 재가입할지, 환매를 늦출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진다.

증시 전문가들의 의견은 팽팽하게 맞섰다.

장춘하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양적완화 축소가 단행되면 채권 가격에 하락하면서 '채권에서 주식시장으로의 전환'이 일어나 주식 가격이 상대적인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며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올 하반기 국내 증시의 상승 가능성이 있으므로 담은 펀드를 더 보유하는 것도 괜찮다"고 판단했다.

반면 일부 아시아 신흥국 시장의 금융위기 가능성이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어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다는 주장도 거세다.

임노중 아이엠투자증권 연구원은 "신흥국 위기설로 한국의 매력이 부각되면서 (외국인 자금이 국내 증시로 유입됐으나) 실제로 위기가 발생하면 신흥국 시장에서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국내 증시도 예외가 아닐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정기자 hjkim1@metroseoul.co.kr

신용회복제도 이용 연체자 12년 경과땐 불이익 없앤다

올해 4분기부터 신용회복 지원제도를 이용한 연체자들도 12년이 지나면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신용회복 지원제도 이용자도 올 4분기부터 일반 연체자처럼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신용등급 평가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개선 대상은 희망모아와 상록수 등 2000년대 초반 카드사태 이후 도입된 신용회복 지원제도 이용자들이다. /연합

송편으로 그린 이색 미인도 추석을 앞두고 롯데백화점이 12일 서울 소공동 본점에서 마련한 '오색 송편 만들기 이벤트'에서 한복을 차려입은 모델들이 오색 송편으로 신윤복의 미인도를 본떠 만든 작품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준금리 동결

한은 넉달째 연2.50% 결정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 5월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2.50%로 내린 이후 넉 달 연속 동결 조치다.

한은은 12일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행 수준에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한은은 금리 동결 배경에 대해 "수출 대상국인 신흥국 시장의 성장세 둔화, 미국 양적완화 축소에 따른 국제 금융시장 불안 우려 등 경제의 하방 위험도 만만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역시 한은 통화정책의 가장 큰 변수 중 하나다. 양적완화 축소는 17~18일(현지시간)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결정될 것이란 관측이 유력한 상황이어서 좀 더 진행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커졌다.

한은의 이번 결정은 시장의 예상과도 일치했다. 앞서 채권 전문가 126명 가운데 전원(100%)은 9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했었다. 이머징 금융시장의 불안, 시리아 리스크 등이 상존하고 있으나 기준금리 변동에 영향을 주기는 어려울 것이란 판단에서다.

금융업계는 한은이 내년 하반기에나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관측했다. /김혜림기자

뉴스 & 뉴스

카톡 잠금모드 등 기능 추가

● 이젠 카카오톡 PC로 파일을 보내고 스마트폰으로 보는 것이 가능해졌다.

모바일 메신저 업계인 카카오는 카카오톡 PC에서 문서·동영상·오디오·이미지 파일을 포함한 다양한 파일을 전송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고 12일 밝혔다. 파일은 개당 최대 100메가바이트(MB)까지 전송할 수 있다. 파일 전송은 PC 버전에서만 가능하지만 주고받은 파일은 PC와 스마트폰에서 모두 볼 수 있다.

게임방 스타일에 엑셀 문서를 연상시키는 엑셀 디자인을 추가해 색다른 재미도 선사했다. 이와 함께 사용자의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도록 잠금모드 기능도 추가했다. /이국명기자

성북구 APT 전세가율 65% 최고

서울 11개구 60% 돌파…집값 비싼 강남은 50%대

때두가 다르게 전셋값이 치솟으면서 서울 25개 구 중 11개 구의 아파트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의 60%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부동산 리서치 전문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서울에서 성북구 등 총 11개 구의 아파트 전세가율이 8월 말 현재 60%를 넘었다. 전세가율은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구별로는 성북구가 65.8%로 가장 높았고, 관악구(63.1%)와 서대문구(62.8%), 강서구(61.8%), 구로·동작구(61.1%) 등의 순이었다. 반면 강남권과 용산지역 아파트는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낮았다. 용산구가 46.8%로 전세가율이 가장 낮았으며 이어 강남구는 52.1%를 기록했고, 강동구 54.2%, 서초구 54.6% 등으로 집계됐다.

리얼투데이 양지영 팀장은 "강남권과 용산의 경우 고가 아파트나 전셋값이 싼 재건축 아파트가 많이 밀집돼 있어 전세가율이 낮게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전세 시장의 고공 행진은 하반기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수요는 매매보다 전세로만 몰리고, 집주인들은 월세를 선호해 전세 매물이 더 귀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수요가 전세로만 몰리면서 매물 품귀 현상이 심해질 전망"이라며 "올 하반기에 전세난이 다시 올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하반기 전세 가격이 다소 진정세를 보일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2분기 부동산시장 동향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하반기 전세 가격은 신규 주택 입주 예정 물량 증가로 다소 진정세를 보일 것"이라며 "다만 실물경기나 저금리 환경 등의 영향을 받게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민지기자 min1@metroseoul.co.kr

강덕수 경제단체 보직 사퇴

강덕수 STX그룹 회장이 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서울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단체 부회장직을 사퇴했다.

STX그룹은 12일 강 회장이 3개 경제단체 부회장직을 사퇴하고 외부 경제단체 활동도 중단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국명기자

6대 재벌 자산비중 급증

51개 출총제 대기업집단 웅진·STX 퇴출로 68%

'샐러리맨 신화'가 사라지고 있다. 반면 재계 6대 가문이 쌓은 '철옹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기업 경영성과 평가기관인 CEO스코어는 자산 규모 5조원 이상의 51개 출자총액제한 대기업 집단 자산 총액에서 범삼성·범현대·범LG·SK·롯데·범효성 등 6대 가문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말 67.7%로 집계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2007년 말 59.5%에서 5년 새 8.2%포인트 커진 셈이다.

특히 6대 가문의 순익 증가율은 놀라울 정도다. 이들의 순익은 2007년 37조원에서 지난해 말 60조원으로 63.3% 늘었다. 그 비중도 65.6%에서 91%로 25.4%포인트나 뛰어올랐다.

6대 가문의 비중은 올해 말에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샐러리맨 신화'의 주역이던 웅진과 STX그룹이 구조조정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2011년 말 대기업 집단 내 순위 31위였던 웅진과 지난해 말 기준 13위였던 STX그룹이 떨려나게 되면 출자총액제한 그룹 중 샐러리맨 창업 기업은 박현주 회장이 이끄는 미래에셋만 남게 된다. 박주근 CEO스코어 대표는 "맨손으로 사업을 일군 뒤 공격을 불러온 고속 성장 신화가 더 이상 날을 붙이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6대 가문 중 자산 총액 비중이 가장 높은 그룹은 범삼성가로 삼성·신세계·CJ·한솔을 합쳐 지난해 말 기준 자산이 358조원이나 된다. 출총제에 속한 일반 기업 총 자산의 23%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어 현대자동차·현대중공업·현대·현대백화점·현대산업개발·KCC가 속한 범현대가의 자산은 273조원으로 17.5%다. /이국명기자 lmlee@

metro Russia

metro HongKong

「蜘蛛人」攀張家界

장자제 50m 수상절벽 세계 최초 맨손정복

아시아의 '스파이더맨' 리롱싱이 중국 후난성에 있는 장자제 수상 절벽을 세계 최초로 맨손으로 정복했다. 5일 절벽 정복에 도전한 리롱싱은 50m 높이의 수상 절벽을 맨손으로 왕복했다. 장자제는 해발 1480.9m의 봉우리로 바윗돌로 이뤄져 그동안 맨손 등반을 한 번도 허용하지 않았다. 이날 리롱싱의 도전에는 1000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몰려들어 성황을 이뤘다. /정리=박국경기자

metro Italy

이탈리아 2024년 하계올림픽 유치 도전

이탈리아가 2024년 올림픽 개최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8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2020년 도쿄 하계올림픽 유치가 결정된 직후 엔리코 레타 이탈리아 총리는 "이번 일을 보며 우리도 2024년 올림픽을 개최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현재 이탈리아에서 올림픽 개최를 희망하는 도시는 수도인 로마와 부지 도시간 밀라노다. /정리=박가윤 인턴기자

'통아저씨' 뺨치는 '통아줌마'

러시아 체조선수 출신 미녀 곡예사 '50cm 상자 안에 몸 넣기' 등 기네스 기록 보유

50cm 크기 상자 안에 온몸을 넣을 수 있을까.

10일(현지시간) 메트로 모스크바가 일반인의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유연한 몸을 자랑하는 러시아의 미녀 곡예사 줄라타(율리아 군트헬)를 만났다. 체조 선수 출신으로 놀라운 유연성을 자랑하는 줄라타는 2007, 2008년 두 차례나 '세계 최고 유연녀'로 기네스북에 이름도 올렸다.

▲언제 자신이 가진 특별한 재능에 대해 알게 됐다

네 살 때 우연히 유치원 선생님이 다른 아이들에게는 없는 남다른 유연성을 내게서 발견하고 부모님에게 연락했다. 부모님은 곧바로 나를 체조 학교에 보내셨고 그곳에서 다양한 체조 동작을 익히며 유연성을 키우는 법을 알게 됐다.

두 번이나 기네스북 기록을 수립했다. 특별히 참가하는 대회나 무대가 있다면

매년 갈라쇼 공연을 하고, 12년째 거주 중인 독일에서도 활발하게 방송 활동을 하고 있다. TV쇼를 비롯해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은 어디든 달려간다. 곡예사 대회에도 꾸준히 참가하고, 곡예가 운동 종목은 아니지만 기량을 발전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훈련한다.

◆사람들이 당신의 공연에 대해 보이는 반응은 어떤가

공연을 본 사람들의 반응은 다양하다. 입을 벌리며 말을 잇지 못하는가 하면 나를 지켜보는 것조차 고통스러웠다는 사람도 있다. 공연이 끝난 후 내가 했던 포즈를 따라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몸으로 표현하는 예술의 우아함과 여성의 유연함에 매료됐다고 하는 이들도 있다. 다행인 것은 많은 대중들이 내 공연을 즐겁게 보고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점이다.

◆포즈를 취할 때 아프진 않다

동작을 하는 데 있어 특별히 고통스럽거나 힘든 점은 없다. 다만 건강에 무리를 주지 않기 위해 공연 전 한 시간 정도 충분히 스트레칭을 하고, 정신적으로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기 위해 명상을 하거나 집중을 하려고 노력한다. 완벽한 무대를 선보이기 위해 일주일에 최소한 4번, 4시간씩 훈련한다.

◆공연이 없을 때는 주로 어떻게 시간을 보내나

곡예사로 활동하지 않을 때 나는 평범한 주부이자 한 아이의 엄마다. 물론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아들에게 좋은 엄마가 되고자 노력한다. 가족들도 곁에서 많이 응원해줘 힘이 된다. 나는 멋진 직업과 행복한 가정을 가진 행운아인 것 같다.

/안나 추코브코바 기자 · 정리=조선미기자

metro America

깜빡하기 쉬운 교통카드 대신 전자태그 반지

조금만 방심하면 집에 놓고 나오기 쉬운 교통카드. 잊지 않고 챙길 방법은 없을까.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학생들이 매일 아침 지하철 풍경을 바꿀 획기적인 반지를 들고 나왔다. 전 세계 지하철역 점령을 노리는 이른바 '지하철 반지'.

학생들은 3D 프린터를 이용해 반지를 만들었다. 사각형 보양의 반지 한가운데는 전자태그(RFID)가 부착돼 있으며 방수 기능도 갖췄다. 반지 낀 손을 단말기에 대면 '삑' 소리와 동시에 지하철 개찰구가 열린다.

MIT 박사 과정에 있는 크리스 벤슨(24)은 같은 학교 학부생 두 명과 '지하철 반지'의 제왕'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벤슨은 "교통카드 대신에 반지로 지하철 개찰구를 통과하는 건 마치 마법 같다. 반지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도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좋다"며 반지 낀 손을 내보였다.

프로젝트 팀은 당초 소셜펀딩 사이트 '킥스타터'를 통해 14일까지 5000달러를 모금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투자자들의 뜨거운 호응에 힘입어 지난주에 이미 1만4300달러의 투자금을 모았다.

이에 앞서 이들은 매사추세츠교통국(MBTA) 관계자들을 만나 지하철 반지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했다. 벤슨은 "MBTA 관계자들 역시 반지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며 시제품을 눈여겨봤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반지를 제품으로 만들어 보스턴 내 지하철이나 시내버스에서 교통카드처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모린 튜스 기자 · 정리 조선미기자

가을게임판 달군 액션 새얼굴

무협게임 '용쟁호투'이어 MMORPG '라프'도 출시 대중성 높여 흥행 도전장

감성게임은 비켜라. 액션게임이 나간다.

춘추전국시대 같은 게임업계. 어른 게임 시장을 '드래곤 프렌즈' 등의 아기자기한 감성게임이 평정했다면 올가을은 액션게임의 칼날이 매서울 전망이다. 기존 액션게임이 높은 난이도로 특정 마니아층으로부터 호응을 얻었다면 신규 액션게임은 눈높이를 낮춘 대중성이 특징이다.

1세대 게임업체 유니아나는 지난 11일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라프(사진 위) 출시 발표회를 통해 정통 액션게임 선전포고를 알렸다.

25일 정식 서비스되는 온라인 액션게임 라프는 로아 왕국의 전쟁을 막기 위해 4명의 주인공이 모험을 떠나는 다섯 단계의 이야기로 시작된다. 각 캐릭터는 검술 고수 기사, 원거리형 궁술을 보유한 현상금 사냥꾼, 근접형 흑마법사 '암흑 소환사', 원거리형 마법 캐릭터 '마법사'로 구성됐다.

라프는 실제 상황을 연상케 하는 대규모 전투 장면, 화려한 스킬과 아이템, 강렬한 타격감으로 출시 전부터 화제를 모았다. 장엄한 게임 환경뿐 아니라 미니 축구게임 등 '게임 속 게임'은 액션게임에 익숙하지 않은 초보 사용자라도 쉽게 게임을 즐길 수 있게 한다.

유니아나 조남형 부장은 "게임 이름을 짓는 조기 단계부터 페이스북 공모전을 통해 사용자 참여를 이끌어냈다"면서 "기존 액션 역할수행게임이 난이도가 어려워 일부 사용자층에게만 호응을 받았다면 라프는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출시된 '용쟁호투'(사진 아래)는 무술 배우 이소룡의 대련을 연상시키는 무협 액션 온라인게임이다. 이름부터 이소룡 대표작 '용쟁호투'에서 명명한 이 게임은 군대들의 학습연합을 통해 성을 순차적으로 점령한다는 줄거리를 지닌다. 동양사상 '오행(五行)'을 캐릭터에 적용했으며 사용자 시수에 맞는 캐릭터 추천 서비스로 참신한 재미를 선사한다. 무협 액션게임 시장이 과거 '삼국지 온라인'만큼의 인기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용쟁호투는 무협게임의 대중적 해석을 가미했다.

용쟁호투를 서비스하는 네티모 관계자는 "액션게임 특유의 웅장함과 소소한 재미를 함께 넣어 누구나 즐기는 무협게임을 지향한다"고 말했다.

/정윤희기자 jenue@metroseoul.co.kr

피쉬아일랜드 출시 1주년 '금 1돈 돌반지'경품 이벤트

한게임의 스마트폰 게임 '피쉬아일랜드'가 12일로 출시 1주년을 맞았다.

NHN엔터테인먼트가 자체 개발·운영하는 '피쉬아일랜드'는 구글 플레이 최고 매출 2위 기록과 함께 여전히 10위권의 순위를 유지할 만큼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 게임은 평범한 낚시게임에서 진화해 모바일게임에 최적화된 리듬 터치 방식과 역할수행게임 장르를 도입해 대중적인 인기를 끌었다.

NHN엔터테인먼트 김상복 이사는 "서비스 1주년을 기념하는 '금 1돈 돌반지' 증정 이벤트 등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윤희기자

라인 게임 내려받기 2억건

네이버의 모바일 메신저 '라인'이 글로벌 게임 플랫폼의 위상을 굳히고 있다.

네이버는 라인 게임이 출시한 지 1년2개월 만에 서비스하는 총 36개 게임의 내려받기가 2억 건을 넘어섰다고 12일 밝혔다. 네이버가 자체 개발한 라인팝은 3400만 건, 라인버블은 2600만 건 이상의 내려받기를 기록하는 등 성과를 높이고 있다.

네이버는 라인 게임 2억 내려받기 돌파를 기념해 13일부터 하루 한 게임씩 이용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이국명기자

'롤드컵 16강' T1-갤럭시 오존 만난다

16일 미국 LA서 대회 개막 국내 1위 블랙소드 8강행

리그오브레전드 최대 축제 '롤드컵' 대진표가 확정됐다.

인기 온라인게임 리그오브레전드(LoL)를 운영하는 라이엇 게임즈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16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진행될 'LoL 시즌 3 월드 챔피언십(일명 '롤드컵')' 일정을 발표했다.

롤드컵 본선 출전팀은 총 6개 지역 14개팀으로 우리나라 3팀을 포함해 북미 3팀, 유럽 3팀, 중국 2팀, 동남아시아 및 대만·홍콩·마카오 2팀, 국제 와일드카드 1팀 등이 출전한다.

현재 우리나라 국가대표 SK텔레콤 T1과 삼성 갤럭시 오존의 16강 단판승 대진표가 확정된 상태다.

우리나라 1등으로 뽑힌 나진 블랙 소드는 자동 8강으로 직행한다. 3판 2선승제의 8강 대진표는 16강전이 끝나는 22일 이후 결정된다. /정윤희기자

'던파' 최대 규모 업데이트

넥슨이 역대 최대 규모의 온라인 액션게임 '던전앤파이터' 업데이트를 실시한다.

이번 업데이트로 게임 내 주 무대였던 아라드 대륙이 사라지고, 실버 크라운', '헨더존', '시궁창', '베히모스', '북의 쉼터' 등 5곳의 신규 지역(에어리어)이 새롭게 생겨났다.

또 새로운 모험을 위한 38종의 신규 던전과 각 지역(에어리어)별 스페셜 던전 5종이 추가됐다. 넥슨은 이번 업데이트를 기념해 11월 14일까지 '나진이 스페셜 서버'를 오픈한다. /이국명기자

star bag

아내에 승소 … 이혼 면했다

가수 나훈아가 세 번째 이혼 위기에서 벗어났다.

대법원 1부는 12일 나훈아의 부인 정모씨가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 분할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정씨는 "남편이 오랜 기간 연락하지 않고 생활비도 주지 않은 채 방문을 저질렀다"며 2011년 이혼 소송을 냈고, 나훈아는 이혼을 원하지 않았다.

버버리 패션쇼 2년째 초청

전도연이 패션브랜드 버버리 패션쇼에 2년 연속 초청받았다.

12일 소속사에 따르면 전도연은 16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하이드파크에서 열리는 버버리 컬렉션에 참석한다. 이 행사는 세계 4대 패션쇼로 꼽히는 런던 패션위크의 마지막을 장식한다. 전도연은 올해 말 사영화 '집으로 가는 길'의 개봉을 앞두고 있다.

'누아르'서 드라마 첫 주연

2PM 찬성이 다음달 2일 방송될 KBS2 드라마스페셜 단막 2013 '당신의 누아르'를 통해 드라마 주연신고식을 치른다.

이 드라마에서 그는 사신을 섬서하려는 검사(홍경인)의 아내(채정안)가 고교 시절 짝사랑했던 선생님이란 사실을 알고 갈등하는 유도선수 출신 조폭 청주로 출연한다. 제작진은 "운동신경이 뛰어나고 열의가 대단해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고 전했다.

SBS '야왕' 일본 스크린 상영

권상우·수애 주연의 SBS 드라마 '야왕'이 27일부터 일본 극장에서 상영된다.

12일 산케이스포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야왕'은 '극장판 야왕 – 서장'이란 제목의 특별 편집본으로 일본 전역의 24개 극장에서 현지 관객들과 만난다. 권상우와 동방신기 유노윤호의 영상 메시지도 공개될 예정으로, 유노윤호는 "이야기를 예측하기 어렵고 볼거리가 많이 화제를 것"이라고 자신했다.

솔로 2집 '쿠데타' 낸

지드래곤

지드래곤(25)은 "날티 나고 찌질한 스타일"이라고 자신의 음악과 패션 취향을 설명했다. 빅뱅의 리더이자 솔로 가수 겸 프로듀서이며, 스타들이 좋아하는 스타인 그는 하나의 문화 아이콘으로 확고히 자리 잡았다. 솔로 정규 2집을 준비하며 트렌드 리더로서 큰 부담을 느꼈지만 자신을 '뛰어넘겠다'는 각오로 앨범명을 '쿠데타'라고 이름 지었고, 그의 도발에 대중은 또 한 번 열광했다.

/유순호기자 yoosh@metroseoul.co.kr

지드래곤은 17일까지 청담동 카이스 갤러리에서 숫자 8을 주제로 미공개 사진, 월드투어 의상, 소품 등을 전시하는 '지드래곤 스페이스 8'을 개최한다. 개막 하루 전인 8일 갤러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지드래곤 + 체 게바라>

삐딱해서 대중 반한 '지 게바라'

◆ 창작 고통, 솔로 포기 생각도

이번 앨범의 타이틀곡인 '니가 뭔데'와 '블랙'은 음원 공개 직후 단숨에 국내 주요 음원차트 1위에 올랐다. 수록곡 전곡이 상위권에 들어서는 '차트 줄세우기'가 펼쳐졌다. 13일 출시되는 오프라인 앨범은 첫 주문 물량만 30만 장을 기록했다. 이 같은 뜨거운 반응을 얻기까지 지드래곤의 고민은 컸다.

"스트레스를 잘 안 받는 편인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혼자서 많은 부분을 해야 하다 보니 슬럼프까지는 아니어도 더 이상 새로운 걸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고민이 많았죠. 이제 솔로 음반은 그만해야겠다는 마음도 먹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으니 앞으로도 계속해야겠다고 생각을 바꿨죠."

12개 수록곡 중 전곡의 작사와 10곡의 작곡에 참여했다. 창작 과정에서 자신의 곡을 제대로 평가해줄 사람이 많지 않아 대중과의 접점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대중가요의 흐름은 갈수록 빨라지고, 올해만 봐도 올해를 대표하거나 향후 몇 년간 대중이 좋아할 만한 히트곡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올해 솔로 월드투어로 57만 명을 동원한 지드래곤이 1일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마지막 공연에서 객석에 내려가 앵코르곡을 선사하고 있다.

타이틀 4곡 음원차트 휩쓸고 앨범 30만장 선판매
"내 매력? 날티 나고 찌질한데, 팬들은 귀엽나봐"

그런 점에서 이번 앨범에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서 기분이 좋아요. 앞으로 더 만족시켜야 하는 부담감이 늘었지만 제가 풀어야 할 숙제라 생각합니다."

지난해 발표한 미니앨범 '원 오브 어 카인드'에서 취향을 집중적으로 다뤘다면, 이번 앨범에서는 자신이 하고 싶은 다양한 음악을 세계적인 아티스트와 함께 풀어냈다. 특히 타이틀곡 '늴리리야'는 전통 민요의 보이스 샘플을 활용해 접목시킨 곡으로 세계적인 여성 힙합 뮤지션인 미시 엘리엇이 피처링으로 참여해 화제를 모았다.

"제작년에 만들어둔 트랙이에요. 미시 엘리엇을 생각하고 만든 건 아니었고, 민요를 모티브로 썼기 때문에 지금 잘 나가는 스타보다 예전의 아티스트와 함께 하는 게 좋을 것 같았죠. 엘리엇의 변이라 제안했는데 흔쾌히 허락해줬어요. 얼마 전에 미국에서 같이 공연을 하게 돼 무척 영광이었어요. 보기와 다르게 작하고 겸손해서 많은 걸 배웠어요."

◆ 제스처·패션 연출도 작업 일부

노골적인 음반 제목처럼 네 곡을 타이틀곡으로 내세우는 자신감과 고유의 음악 스타일은 앨범 곳곳에 담겨있다.

"프로듀싱이라는 말은 꼭 음악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저 자신을 사람들에게 보이는 작업이죠. 음악 가사·제스처·표정·패션·스타일링 등을 수록곡과 비교하자면 '삐딱하게'와 어울릴 것 같아요. 속된 말로는 '날티' 나는 걸 좋아해요. 약간 '찌질'해 보이기도 하지만 대중이 귀엽게 보시는 것 같아요."

질근질근 씹는 듯한 특유의 랩 스타일과 창법은 많은 후배·동료 가수들이 따라 하는 하나의 유행이 됐다.

"저도 다른 아티스트를 보며 영감을 많이 받는데 여러 후배에게 영감을 준다는 건 뿌듯하죠. 영향과 영감을 받되 자기 것으로 바꾸고 스며들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 또한 앨범을 낼 때마다 발전하고 바뀌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모든 아티스트의 고민거리이자, 그것이 아티스트를 보는 대중의 재미죠."

사진/YG엔터테인먼트 제공 디지털/전식중

'V-스캐너' 란?

오직 tvN <퍼펙트싱어VS>에서만 볼 수 있는 최첨단 장비로, 노래의 음정, 박자는 물론, 당김음과 바이브레이션 등 싱어가 가진 스킬까지 정밀하게 체크해 눈 앞에서 게임을 하듯 박진감 넘치는 화면으로 보여준다. 이제 V-스캐너가 당신의 노래를 평가한다!

'연애 허당' 보아 딱이네 !

데뷔작 '연애를 기대해' 연기력 호평일색…시청률은 부진

KBS2 2부작 단막극 '연애를 기대해'로 연기에 본격 도전한 보아가 연기력에선 합격점을 받았지만 시청률에선 신통치 않은 성적을 거뒀다.

보아의 국내 연기 데뷔작으로 방영 전부터 화제를 모은 이 드라마는 각양각색 연애관을 지닌 네 남녀의 사랑 이야기를 유쾌하고 현실적으로 그린 작품이다.

11일 방송된 첫 회는 연애에 번번이 실패하는 연애(보아)가 우연히 알게 된 기대(최다니엘)로부터 튜터링 계약으로 연애 코치를 받으며 진국(임시완)과 연애를 시작하는 이야기를 담았다.

보아는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상큼하고 발랄한 모습으로 색다른 매력을 어필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바람핀 전 남자친구(인교진)에게 욕설을 퍼붓는가 하면, 자신의 친구와 함께 있는 진국을 목격한 후 뒤에서 눈물을 글썽이는 등 다양한 연기를 비교적 안정된 연기력으로 소화해 시청자들로부터 "기대 이상의 연기"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보아의 열연과 연기 데뷔작이라는 화제성에도 불구하고 시청률은 3.0%(닐슨코리아 전국 기준)에 그쳤다.

전작 '칼과 꽃'의 마지막 회보다 2.3%포인트나 떨어진 수치로, 파일럿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감안해도 기대에 못 미쳤다.

한편 이날 같은 시간대에 방영된 SBS '주군의 태양'은 지난주보다 1%포인트 오른 18.3%의 시청률로 수목극 독주를 이어갔다. MBC '투윅스'는 9.5%를 기록했다.

/박진현기자 tak0427@metroseoul.co.kr

★보르코시건 시리즈★
명예의 조각들
16화 글 그림 이기

※ 원작 「명예의 조각들」(로이스 맥마스터 부졸드 지음 / 씨앗을뿌리는사람 출간)은 서점에서 절찬리 판매중입니다

'스플래시' 파문만 일으키고 폐지

방영 4회 만에 막 내리기로

출연진의 줄부상으로 안전문제가 제기된 MBC '스타 다이빙쇼 스플래시'가 결국 폐지된다.

12일 MBC에 따르면 이날 오전 임원회의 결과 '스플래시' 폐지가 최종 결정됐다. 이에 따라 지난달 23일 첫 방송 이후 방영 4회 만인 13일 막을 내리게 된다.

스타들의 다이빙 도전기를 담은 이 프로그램은 4일 이봉원이 다이빙 연습 중 수면에 얼굴을 부딪혀 눈 밑 뼈 일부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으며 안전 문제를 지적받았다. 앞서도 클라라와 샘 해밍턴, 이훈, 김영호, 양동근 등 여러 스타들이 줄부상을 당한 바 있다.

이로 인해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MBC 측은 6일과 13일 예정된 녹화를 취소했다.

후속으로는 현재 MBC가 준비 중인 여러 파일럿 프로그램 중 하나가 편성될 예정이다.

대학생들이 하숙집에서 합숙하며 벌어지는 일을 담은 '어서오세요', 실제 일어난 사건의 뒷이야기를 파헤치는 '사건파일 X토리' 등이 물망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박진현기자

PHOTO

햅번보다 햅번스러운 배우 유인영이 우아하고 매혹적인 분위기의 흑백 화보를 공개했다. 한 패션 잡지 화보에서 레이스가 달린 블랙 의상을 입고 올림머리를 해 영화 '티파니에서 아침을'의 오드리 햅번을 연상시키는 분위기를 연출했다.

▶ 도도해 보이는 매력은 햅번보다 한 수 위인 듯 하네요. /박진현기자

모든 세대를 사로잡는 단 하나의 뮤지컬!

뮤지컬

백설공주를 사랑한 난장이

12년간 / 135개 지역 / 2,800회 공연 / 그리고 80만 관객의 감동!
바로 그 연극 '백설공주를 사랑한 난장이' / 이제 뮤지컬로 다시 시작합니다

2013년 9월 13일(금) 3pm Ticket Open!!

동화 속에 숨겨둔 가슴 아픈 사랑이야기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여주세요

2013.12.3 (화) ~ 2014.1.26 (일) 이화여자대학교 삼성홀

예매 인터파크 1544-1555 ticket.inetrpark com 문의 02-556-5910

제작 생각나무 ShowPLAY 기획 홍보 마케팅컴퍼니 아침

날씨

9/13 金 일출 06:12 일몰 18:43

가을철 나들이 도시락은 식중독 예방을 위해 1회분씩 소량으로 준비해 4시간 이내에 먹는 게 좋습니다. 국이나 찌개류 음식은 그늘지고 서늘한 곳에 둬야 상하지 않습니다.

감기 가능 지수
피부 질환 가능지수
뇌졸중 가능지수
피부 질환 가능지수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 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3							
6		8		5				
		1	7					9
	5	3	6					7
			1		8			
2					4	3	1	
5					7	4		
				9		5		8
							2	

	7		2	1		3		
6	5		9	7				
								1
			5					
9		7				4		3
					8			
1								
				6	4		9	5
		3		5	7		8	

스도쿠 정답

문제제공=보누스
인사 스도쿠 플래티넘 (마이클 리오스 지음)

서울역, 그 뜨거운 역사의 현장

권기봉의 도시산책 <49>

옛 서울역사 앞을 지날 때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없던 동상을 하나 만날 수 있다. 강우규 의사의 동상이다. 강 의사는 지난 1919년 9월 2일 옛 서울역 광장에서 새로 부임하는 사이토 마코토 조선 총독에게 폭탄을 던진 인물이다.

비록 사이토 총독의 목숨까지 빼앗지는 못했지만 당시 강 의사의 의거는 일제의 간담을 서늘케 하기에 충분했다. 일본 경찰 등 37명을 폭사시키거나 다치게 하는 등의 성과만이 아니라 당시 강 의사의 나이가 64세였기 때문이다.

지난 19세기 말 일제가 경인선을 놓은 이후 조선 침략, 나아가 대륙 침략의 발판으로 기능해온 옛 서울역은 늘 치열한 역사의 한복판에 있었다. 3·1운동 때에는 이곳에서 출발한 열차들이 전국 방방곡곡으로 그 소식을 실어 날랐고, 해방 때에는 기쁨에 겨운 수많은 조선인들이 태극기를 휘날렸다. 지난 1960~70년대에는 일자리를 찾아 상경한 젊은이들이 서울 땅에 발을 들여놓는 창구였고, 동시에 이들을 위해 곡식이며 온갖 먹거리를 싸들고 상경하는 우리의 어머니들을 맞이하던 역이었다. 1980년 '서울의 봄'과 87년 6월 항쟁을 기억하는 이들은 옛 서울역 광장에서 울려 퍼졌던 뜨거운 함성을 떠올릴 것이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옛 서울역 주변의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옛것과 어울리지 않는 새 역사와 쇼핑센터가 들어서면서 옛 서울역사는 거의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고 있다. 역 광장과 그 주변에 몰려드는 노숙인들은 한국 사회의 그늘, 그리고 양극화의 결과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서울역은 단순히 철도의 시발점이자 종착점이 아닌 오늘날의 한국이 있게 한 주요 현장이었다는 것을 웅변하고 있는 것은 그나마 강우규 의사의 동상뿐이다. 뜨거운 역사와 현장치고는 참 쓸쓸한 풍경이다.

/'다시, 서울을 걷다' 저자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금속업종 회사 그만두고 싶어 2016년 목표 공무원 도전할만

천하계월통운아 남자 88년 5월 25일 양력 오후 1시30분

Q 대학에서 금속공학을 전공했고 지금 하고 있는 일도 금속 관련 업종입니다. 하지만 지금 하는 일이 적성에 안 맞습니다. 공무원을 하고 싶은데 저에게 잘 맞을지 궁금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떤 직업을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A 생시가 오후 1시30분이라면 관운이 될 수가 있는데 관성이 강하지 않다면 할 하든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물론 이론이 그렇다는 것이니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좋은 사람부터 미래를 위해 대비한다면 작은 노력들이 하나하나 쌓여 운의 흐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험은 2016년을 목표로 준비하십시오. 황금기는 34세 전이며 35~44세에는 일을 열심히 해야 하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44세가 지나면 다시 전성기가 옵니다. 이렇듯 돌고 도는 것이 인생사입니다. 합리적인 것이 장점이지만 결벽증이라고 할 정도로 매몰차게 선을 긋다 보면 자신에게 손해가 될 수 있고 원치 않게 적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돈벌이 시원찮아 이직 고민 중 복과 행운이 따르는 부자 사주

비아금눈적 닥 여자 84년 2월 18일 양력 오후 3시

Q 배우는 걸 좋아하고 현재 콜센터 상담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1년 전부터 벨리댄스에 관심이 생겨 공연도 준비 중입니다. 옷 파는 스타일이나 액세서리에도 관심이 많아 옷가게를 하고 싶었던 적도 있고요. 돈벌이가 시원찮다 보니 다른 직업에 한눈을 팔게 됩니다.

A 녹아동천(綠野同天)으로 노력 이상에도 복록과 행운이 따르는 부자의 사주입니다. 생일지가 어둠과 밝음이 공존하는 상으로 극과 극을 달릴 수 있으니 돈 버는 방법을 생각하십시오. 2014년 9월까지는 심신이 분주한 가운데 산만하지만 그 시기가 지나면서 재물에 대해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벨리댄스나 다른 일은 취미로 하면서 부동산 공부를 하고 건축에 대해 연구하십시오. 이모가 많아지니 대외 활동이 주목되고 34세 이후부터 운세가 좋아지니 그때 직업을 바꿀 수 있도록 역량을 키워나가세요. 살림을 잘 하는 유형임을 인식하고 구후방해(九厲防害)하여 지후 면에서로 가정의 행다가 [illegible] 암시됨을 참고하십시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9월 13일 (음 8월 9일) 김학수 인생상담

쥐: **48년생** 막힌 물은 흘리니 걱정 마라. **60년생** 장고 끝에 악수를 둔다. **72년생** 떠나려는 사람 억지로 잡지 마라. **84년생** 운기가 트이니 적극 움직여야 얻는 게 많다.

소: **49년생** 믿었던 자녀가 고민을 안긴다. **61년생** 어음이 심란할 땐 자중이 상책~ **73년생** 얼굴 내세우면 신뢰만 잃는다. **85년생** 기분이 지나치게 좋을 때 더 조심할 것.

호랑이: **50년생** 이웃의 정이 즐거운 하루~ **62년생** 골치 아픈 문제는 해결이 된다. **74년생** 시샘하는 사람이 많으니 자랑은 자제하라. **86년생** 숨은 선행 밝혀져 칭찬이 쏟아진다.

토끼: **51년생** 나이 잊고 유쾌하게 즐긴다. **63년생** 감언이설에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 **75년생** 멀리서 생각도 못 한 벗이 찾아온다. **87년생** 상사의 조언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라.

용: **52년생** 주변의 도움은 사양 마라. **64년생** 경사가 생겨 한턱낸다. **76년생** 소심할 땐 고기를 충동구매 않도록 조심~ **88년생** 친구 덕에 기분 좋은 하루 보낸다.

뱀: **53년생** 자만의 욕구를 견한다. **65년생** 급한 일일수록 더욱 신중할 것. **77년생** 배우자와 이심전심으로 통한다. **89년생** 계획이 바뀔 수 있으니 대비책 세워라.

말: **42년생** 시비 거는 사람은 무조건 피하라. **54년생** 침묵이 길면 엉뚱한 덤터기 쓴다. **66년생** 직장에 행복 바이러스가 가득~ **78년생** 능력 보여주려다 코피만 쏟다.

양: **43년생** 문서 일에 큰 이득이 생긴다. **55년생** 과시할 경사 있어도 당분간 비밀로 하라. **67년생** 기다리던 소식은 우연히 듣는다. **79년생**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마라.

원숭이: **44년생** 배우자와 대립하면 손해~ **56년생** 진퇴 문제로 고민이 생긴다. **68년생** 금전상 어려움이 예상되니 유념하라. **80년생** 아끼먹은 대로 날이 풀려 힘이 솟는다.

닭: **45년생** 분수 지키아 손해 없다. **57년생** 추진 중인 계획은 성사되니 걱정 마라. **69년생** 해묵은 관련된 일은 길하다. **81년생** 운세가 좋았으니 활발하게 움직여라.

개: **46년생** 과유로 인한 탈 조심~ **58년생** 생각도 못 한 공돈이 생긴다. **70년생** 움직이는 계획은 신중히 할 것. **82년생** 등 떠밀려 하는 일은 성과가 별로다.

돼지: **47년생** 동쪽으로 가면 원하던 걸 이룬다. **59년생** 작은 것에 만족하니 복덩이 굴러오는구나. **71년생** 회사 일 적극적이면 백수 살아진다. **83년생** 욕심부려 걱정거리 만들지 마라.

워밍업 끝낸 아이유

국내 복귀 앞두고 日 새 앨범 발매 첫날 오리콘차트 9위

오랜 공백을 깨고 가수로 돌아오는 아이유(사진)가 워밍업을 마쳤다.

다음달 초 1년6개월 만에 국내에 새 앨범을 발표하는 아이유는 일본 무대에 먼저 오른다. 11일 현지에서 세 번째 싱글 '먼저의 에프터'를 출시한 그는 발매 첫날 오리콘 싱글 일간차트 9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데뷔 싱글 '굿 데이'로 8위, 두 번째 싱글 '유 앤 아이'로 4위를 기록한 것과 비교해 순위가 떨어졌지만, 일본에서도 1년2개월의 공백을 보낸 것을 감안하면 아쉬운 성적은 아니다.

현지 음반 관계자는 "지난해 데뷔 후 여자 중고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급상승했고 최근 들어 남성 팬도 크게 늘어 이곳에서도 '국민 여동생'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이유는 국내 복귀 준비로 바쁜 가운데서도 적극적인 현지 프로모션으로 팬층을 넓혀 간다. 21~23일 도쿄, 오사카, 나고야에서 앨범 발매 기념 팬 이벤트를 개최한다.

도쿄 시부야의 대형 카페에는 8일간 아이유 관련 영상과 사진을 전시하고, 일본 최대 음반 매장인 타워레코드는 시부야점과 신주쿠점에서 총 21일간 아이유 전용 코너를 설치한다.

신곡은 짝사랑에 빠진 여자의 마음을 노래한 것으로, 귀엽고 어린 이미지가 아닌 한층 성숙한 매력을 담았다. 재킷 사진에서도 길게 늘어뜨린 헤어스타일 등 여성스러운 느낌을 표현했다.

국내 출시 앨범에서도 과감한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 드라마 '최고다 이순신' 의 타이틀롤을 소화하며 감성적으로 한 단계 성장했고, 무대 표현력도 달라질 것이라고 소속사 관계자는 귀띔했다.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크레용팝 "김바다 부르시면…"

"아이돌그룹 변신의 대가" 스케줄 쪼개 신곡 코러스

가수 김바다가 아이돌 변신 전문 프로듀서로 주목받고 있다.

일렉트로닉 록밴드 레이시오스를 이끌고 있는 김바다는 17일 발매하는 새 앨범에 화제의 걸그룹 크레용팝과 작업한 신곡 '이 예 예'를 수록했다. 2008년 출시한 정규 1집 '바닐라 델레파시'의 수록곡들을 재녹음하고 신곡을 더해 재발매하는 앨범이다.

김바다는 신곡을 걸그룹과 함께 작업하기 원했고, 주위의 추천을 받아 크레용팝과 녹음을 진행했다. 올여름 가수 중 가장 많은 스케줄을 소화한 것으로 알려진 크레용팝은 바쁜 일정에도 한 걸음에 달려가 김바다와 녹음을 마쳤다.

김바다는 올해 초 JYJ 김재중의 솔로 데뷔 앨범 '아이'에 프로듀서로 참여하면서 화제를 모았다. 김재중은 김바다와 작업을 거치며 거친 로커로서의 숨은 매력을 한껏 드러냈다.

김바다의 소속사 관계자는 "올해 안에 다른 아이돌 그룹과 작업할 계획이고, 아이돌 그룹 멤버 한 명과의 작업도 예정돼 있다. 요즘 아이돌 그룹들은 변신하고자 하는 욕심이 크다"며 "실험적인 음악으로 실력이 검증된 김바다에게 문의가 많이 오고 있다"고 전했다. /유순호기자

크레용팝이 김바다의 신곡을 녹음하고 있다.

CGV 뜬 '스파이' 벨로스터 쏜다

추석연휴 극장가 경품 푸짐

복합상영관 체인이 역대 최대 성수기인 추석 연휴를 맞아 푸짐한 자래상을 준비했다.

롯데시네마는 '해피 시크릿 파티'를 다음달 31일까지 마련한다.

롯데멤버스 회원들은 다음달 2일 개봉될 '소원'을 미리 볼 수 있는 '시크릿 프리미어'와 일반 관람권 2장을 1만원에 구입할 수 있는 '시크릿 티켓'에 참여할 수 있다. 또 '시크릿 QR코드' 이벤트에선 최신 스마트폰과 샤롯데 관람권, 일반 관람권 및 할인권을 경품으로 제공받는다.

이 기간중 롯데멤버스에 신규로 가입하면 일반 3D·샤롯데 관람권과 3000~4000원 할인권과 팝콘 교환권이 들어있는 '시크릿 팩' 행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시크릿 기프트' 에

LOTTE CINEMA PARTY

용도 ... 내생 상품권 등 푸짐한 경품이 주어진다.

CGV는 '스파이' 관객 수 맞아맞히기 행사를 23일까지 실시한다. '스파이' 예매 관객들이 대상이며, 30일 자정까지의 전국 관객 수(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 기준)에 가장 근접한 수치를 적어낸 이들 중 추첨을 통해 1등에게 벨로스터 자동차를 선물한다. 99명에겐 관람권을 증정한다.

/조성준기자

'이정재' 특별전

상암 시네마테크서 열려

이정재(사진)의 출연작들을 한 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한국영상자료원은 이정재의 데뷔 20주년을 맞아 24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서울 마포구 상암동 시네마테크 KFA에서 '영원한 젊은 남자, 이정재 특별전'을 개최한다.

이번 특별전에선 1994년 개봉됐던 데뷔작 '젊은 남자'부터 '오브리더스', '하녀', '신세계'까지 모두 20편이 상영된다. 28일 '신세계' 상영 후에는 이정재가 참석하는 관객과의 대화가 마련된다.

자세한 상영 일정은 한국영상자료원 홈페이지(www.koreafilm.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성준기자

'스파이'의 설경구

'관상'의 송강호

한가위 극장가 '맞수 열전' 볼만!

국내작 '스파이' 설경구 vs '관상' 송강호 첫 흥행대결
할리우드 판타지액션·애니 장르도 2편씩 개봉돼 '경쟁'

올 한가위 극장가의 대진표가 참으로 절묘하다. 한국 영화와 할리우드 판타지 액션물, 애니메이션이 각각 2편씩 짝을 이뤄 개봉된다. 편수로 따지면 예년보다 많지 않다. 연휴가 길거는 일주일 가까이 이어져, 극장보다는 바깥 나들이를 선택하는 관객들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다. 맞의다 질로 승부를 거는 모양새다. /조성준기자 when@metroseoul.co.kr

▶ 설경구 대 송강호

최민식과 더불어 2000년대 후반까지 3강 체제를 결성했던 설경구와 송강호가 '스파이'와 '관상'으로 첫 맞대결을 펼친다. 사적으로도 절친인 이들은 이제까지 단 한 차례도 비슷한 시기에 주인공으로 흥행을 겨룬 적이 없어 이번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설경구는 유독 아내에게 쩔쩔 매는 특수요원 철수로 변신해 코믹 액션 연기에 도전하고, 송강호는 생애 첫 사극에서 계유정난에 휘말리는 관상가 내경으로 나와 그리스 비극의 주인공 같은 캐릭터를 선보인다. 각자가 주특기 대신 새로운 색깔의 연기를 소화한다는 점에서 더욱 이색적이다.

▶ 반인반신 대 악마 사냥꾼

바다의 신 포세이돈과 인간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데미갓(반인반신) 퍼시 잭슨(로건 레먼)이 비슷한 혈통의 친구들과 크로노스에 맞서 싸운다는 내용의 '퍼시 잭슨과 괴물의 바다'는 전형적인 하이틴 대상의 판타지 액션물이다.

3년 전 전편에서 엿되기만 했던 레먼이 어느새 근사한 '훈남'으로 성장해 멋진 액션 실력을 자랑한다.

판스타 릴 콜린스의 팔인 신세대 미녀 스타 릴리 콜린스가 악마 사냥꾼으로 나서는 '섀도우 헌터스: 뼈의 도시'는 '트와일라잇'의 영광을 재현한다. 두 작품은 "옛날 꽃미남"들이 선악으로 갈려 싸우고, 여주인공을 자극점성으로 보살피는 터프가이가 등장했다는 점에서 비슷한 점이 무척 많다.

그러나 지난달 하순 북미 지역에서 처음 개봉됐을 당시 평단으로부터 "제2의 '트와일라잇'을 꿈꾸기엔 너무 엉성하다"는 저가은 평가를 받았다. 흥행 수입도 2800만 달러(약 303억원)에 불과해, 제작비 6000만 달러(약 649억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

▶ 다시 악당이 되고 싶어하는 괄태보 아빠 대 대학으로 들어간 괴물들

할리우드 애니메이션의 신구 명가 일루미네이션과 디즈니 픽사가 '슈퍼 배드 2'와 '몬스터 대학교'로 한국에서 리턴 매치를 벌인다.

북미 지역에선 '슈퍼 배드 2'가 승리했다. '몬스터…'보다 2주 늦은 7월 초에 개봉돼 3억5000만 달러(약 3790억원)를 쓸어담았다. '몬스터…'는 2억6000만 달러(약 2815억원)를 벌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상황은 조금 달라질 듯싶다. 12일 오전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의 예매율 집계에 따르면 '몬스터…'가 4.7%로, 2.7%인 '슈퍼 배드 2'를 앞서고 있다. 2001년 개봉됐던 '몬스터 주식회사'의 높은 인지도 덕분에 "몸 개그 위주인 '슈퍼 배드 2'보다 좀 더 폭넓은 연령대에게 어필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리고,
유쾌한 뷰티마스터
옷 잘 입는 언니
쇼핑 잘하는 언니
트렌디한 언니
SATURDAY NIGHT 23:00

가을 때아닌 '수영복 특수'

긴 명절연휴로 해외여행 늘면서 관련 매출 증가

가을로 접어든 이달 초 롯데마트에선 때 아닌 비키니 수영복을 찾는 이들이 늘었다. 1~8일 매출을 지난해와 비교해 보니 수영복 매출이 22.4% 증가했고, 여름 휴양지에서 유용한 보디용 선크림은 30.0%, 선글라스는 44.7% 매출이 뛴 것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롯데마트 측은 "긴 연휴에 동남아시아 등으로 해외여행을 떠나려는 소비자가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예년보다 긴 추석 연휴에 장거리 여행을 가려는 이들도 많아져 유럽·미국행 항공권은 거의 판매된 상태. 이 때문에 장시간 비행기에 탈 때 유용한 목베개는 105.1%, 하드케이스 캐리어 매출은 26.9% 늘었다. 가족 단위 캠핑을 계획하는 이들로 캠핑용품 매출도 47.1% 증가했다.

여행용품을 사려는 이들이 늘 것으로 보고 롯데마트는 19일까지 '여행용품 기획전'을 연다. 서울역점 등 70여 개 점에서 프랑스 가방 브랜드 델시의 여행가방을 시중가 대비 50% 할인하니, 몽크로스 원터치 그늘막 텐트를 20% 저렴한 4만9300원에 파는 등 캠핑용품 할인도 진행한다.

캠핑업체 코베아에선 인기 제품인 가스랜턴(사진) 2종을 할인해 내놓고 있다. 슈퍼노바 가스랜턴과 뉴갤럭시 가스랜턴을 각각 20% 25% 할인한 7만9000원, 5만9000원에 판다.

/전효순기자 hsjeon@metroseoul.co.kr

바람 불어 좋은 '스타킹 매출'

최근 전년비 35% 늘어

일찍 찾아온 선선한 가을 날씨에 스타킹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다.

비비안은 지난 1~10일 스타킹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 늘었다고 12일 밝혔다.

비비안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9월 후반까지 더위가 계속됐지만 올해에는 낮 최고기온이 25~26도에 머물고 있다"며 "예년보다 쌀쌀한 바람 때문에 여성들이 스타킹을 많이 구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스타킹 업계는 확 준 추위에 맞춰 스타킹보다 두꺼운 타이즈 출시도 앞당기고 있다.

비비안 역시 11월 본격적으로 추위가 시작된다는 예보에 따라 타이즈를 앞당겨서 선보였다. 지난해 9월에는 2~3가지의 타이즈만 출시됐지만 올해는 이미 10여 가지 스타일의 타이즈를 판매 중이다. /박지원기자

VDL '블라썸 컬렉션'으로 꽃 같은 화장 LG생활건강의 메이크업 전문 브랜드 VDL이 12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VDL 가로수길점에서 글로벌 플라워 아티스트 제프 리섬(왼쪽)의 꽃 연출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블라썸 컬렉션'을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마리오아울렛 패션타운 1~3관 연결해 새로 오픈

1관을 새로 단장하며 증축 작업을 해온 서울 가산동의 마리오아울렛이 13일 기존 1~3관을 연결한 '마리오아울렛 패션타운'을 새로 오픈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은 지 13년 된 1관을 전체 리뉴얼하고 지상 8층 규모의 매장을 새로 증축해 1관부터 2관, 3관까지 한 공간에서 쇼핑하고 주차할 수 있게 꾸몄다. 영업면적이 13만2000㎡(약 4만 평)로 600여 개의 브랜드가 입점, 서울 도심 아울렛으로는 최대 규모다.

마리오아울렛 홍성열 회장은 "15년 만에 아시아 최대 수준의 도심형 아울렛 타운을 완성하게 됐다"며 "다양한 브랜드와 합리적 가격, 그리고 편리한 접근성으로 2014년 5000억원의 매출을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전효순기자

산적아, 네가 빌붙기 좋은 팬 없어!

명절 '요리 스트레스' 날려줄 조리기구들 눈길

5일간의 추석 연휴. 오랜만에 모인 식구들이 먹을 명절 음식을 준비해야 하는 주부들의 마음은 편치 않다. 실제로 최근 NS홈쇼핑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주부 36%가 추석 음식 장만이 가장 부담스럽다고 답했다.

요리 전문가들은 "전·잡채 같은 명절 음식은 손이 많이 가 평소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스마트한 주방용품을 활용해 수고를 더는 게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추석 때 가장 많이 쓰는 프라이팬은 코팅이 강력한 제품을 고르는 게 좋다. 코팅력이 약하면 기름을 많이 쓰게 되고, 음식이 자꾸 눌어붙어 모양이 흐트러지기 쉽다. "클로난 에리둥 화이트 코어 프라이팬"은 강력한 다중 코팅 기술로 적은 양의 기름을 사용해도 재료가 눌어붙지 않고, 벽면 코팅을 적용해 세척도 간편하다.

나물 등을 데치고 뜨거운 물을 따라 버릴 때 음식물이 함께 흘러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푸어링 림' 기능이 있는 냄비를 이용하면 간편하다. 푸어링 림은 냄비 테두리에 물을 따라 버릴 수 있도록 구멍이 나 있는 구조를 말한다. '코크마즈 스티마 냄비'는 본체뿐 아니라 뚜껑에도 구멍이 뚫려 있어 많은 물을 버릴 때도 문제가 없다.

채소나 양념 등 재료 준비도 번거롭기는 마찬가지다. '휘슬러 파인컷 야채분쇄기'는 손으로 다지기 번거로운 재료 손질에 적당하다. 용기에 재료를 넣고 뚜껑에 달린 손잡이를 잡아당기면 칼날이 회전하면서 재료를 잘게 다져준다. 칼날 대신 다른 휠터를 끼우면 소스 등을 섞는 데도 활용할 수 있다.

/서지현기자 sjh@metroseoul.co.kr

휠라 '아토피케어 캠프'

휠라코리아는 28일 양평 고소한캠핑장에서 1박2일간의 일정으로 '아토피케어 가족 캠프'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캠프는 최근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아토피의 치료를 위한 '아토피 케어'를 주제로 열린다. 아토피 어린이를 포함한 50가족, 200여 명이 참석한다.

특히 전문 아토피 상담사의 상담도 포함돼 있으며, 천연비누 만들기 체험, 가족 자연 실림욕 등 친환경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마련돼 있다.

먹고 쉬고…서울팰리스로 '고고'

추석연휴 패키지 출시

서울팰리스호텔이 명절 연휴 기간 몸과 마음을 충전할 수 있는 다양한 패키지를 선보인다.

'고고(GO! GO) 추석 패키지'는 '먹고, 쉬고'라는 의미가 담겨있다. 180여 가지의 메뉴를 즐길 수 있는 뷔페 레스토랑 '스톤 플레이트'의 2인 뷔페권과 팰리스 패밀리 트윈 숙박이 포함돼 있어 풍성한 저녁 식사와 함께 아늑한 객실에서 편안한 휴식을 즐길 수 있다. 22일까지 판매하며 가격은 18만5000원(세금·봉사료 별도).

선선한 가을 저녁, 달빛 아래서 화려한 오페라의 향기에 취해 볼 수 있는 '베르디 리골레토 패키지'도 눈길을 끈다.

주세페 베르디의 걸작 오페라 '리골레토'를 '예술의전당' 야외 공연장에서 대형 스크린으로 만날 수 있는 '액상프로방스 오페라 페스티벌' VVIP 2인 초대권과 코너 스위트 숙박으로 구성됐다. 코너 스위트 객실을 이용하면 비니제뉴(니브 라은시)에서의 2인 조식과 피트니스클럽을 이용할 수 있다. 29일까지 진행되며 가격은 27만8300원(세금·봉사료 별도). 문의 www.seoulpalace.co.kr·02)2186-6767~8

/박지은기자

크록스 부츠·스니커즈에도 '구멍 무늬' 라이프스타일 슈즈 브랜드 크록스 코리아가 12일 서울 강남구 임피리얼 팰리스 호텔에서 '2013 가을·겨울 재현쇼'를 열고 신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이번 시즌 크록스는 워커부츠, 색상과 독특한 디자인의 제품을 다양하게 출시했으며, 복고 트렌드를 반영한 스니커즈로 본격적인 운동화 시장 진출을 알렸다. /연합뉴스

한우세트 200명 선착순 특가 혜택

강강술래 오늘 오후2시 추석택배 접수 마감

오늘(13일) 추석 선물 택배를 마감하는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가 이날 오후 2시까지 온라인 쇼핑몰(www.sullamall.com)과 전화 주문(080-925-9292)을 통해 실속 부위로 구성된 특별 한우선물세트를 선착순 200명에게 특가로 한정 판매한다.

꼭 필요한 제수용 인기부위만 담은 '한우정성3호'(국거리·불고기·산적 각 600g)는 5만4000원, 인기 메뉴로 구성된 '한가위세트'(한우양념불고기 900g·소양념구이 520g·한돈양념 500g·돼지양념 500g)는 6만원에 각각 40% 할인 판매한다.

방부제·색소·조미료 등을 일절 넣지 않았고 칼슘과 단백질이 풍부해 기력 보충과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주는 환절기 보양식 한우사골곰탕 대용량 세트(800g·5팩·15인분)는 3만9100원, 소용량 세트(350g·5팩·10인분)는 2만2900원에 구매 가능하다.

한우 정육 부위나 잡육 대신 100% 한우 갈빗살만을 사용한 '정성한우떡갈비세트'(3박스)는 4만7500원, 두뇌 활성을 돕고 신장 기능을 원활하게 하며 허약체질 감퇴에 도움을 주는 흑임자와 국내산 돼지고기가 70% 함유된 '흑임자한돈너비아니세트'(3박스)는 3만7700원에 판매한다.

매장 인기 메뉴인 한우양념불고기1호(1.8kg)는 6만원, 술래양념1호(소양념구이 16대)는 8만원, 술래실속(소양념구이 16대·한우불고기 1.8kg)은 13만원에 살 수 있다. 1+등급 이상 한우를 사용한 '한우정성1호'(국거리·불고기·장조림 총 2.4kg)는 14만원에 판매한다.

미미월드 '공주미미 선발대회'

제품 시리즈 출시 기념 행사 서울랜드에 '프린세스…'오픈

미미월드가 여자아이들의 취향에 맞춘 '공주 미미 시리즈'를 선보였다.

어린이가 입을 수 있는 화려한 드레스와 유리 구두, 드레스를 보관할 수 있는 옷장과 화장대 등 공주놀이를 할 수 있는 아이템으로 구성됐다.

미미월드는 공주 미미 시리즈 출시에 맞춰 서울랜드에서 11월 3일까지 '프린세스 미미 하우스'를 운영한다. 프린세스 미미 하우스에서는 아이들이 공주 미미의 드레스를 입고 왕관을 쓰고, 화장을 하는 등 실제 공주가 되는 체험을 해볼 수 있다.

이와 함께 공주 미미 선발대회를 개최, 선발된 어린이에게 2014년 미미월드의 광고 패키지 모델의 기회를 제공한다. 10월 8일까지 미미월드 홈페이지에서 참가 양식을 내려받아 우편 접수하면 된다. 결선 무대는 11월 3일 서울랜드에서 펼쳐진다. 문의 www.mimiworld.com

LG 이진영 4타점 '불꽃타'

LG 선두 유지 ‥ 삼성, 롯데에 영패 수모

선두인 LG 트윈스가 2위 삼성 라이온즈와의 승차를 더 벌렸다.

LG는 12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벌어진 2013 한국야쿠르트 세븐 프로야구에서 KIA 타이거즈를 11-3으로 대파하고 선두를 지켰다.

반면 0.5경기 차로 LG를 쫓던 2위 삼성은 대구 홈경기에서 롯데 자이언츠에 0-1로 뼈아픈 패배를 당했다. LG와 삼성의 승차는 최대인 1.5경기 차로 벌어졌다.

이로써 줄곧 1경기 이내에서 엎치락뒤치락 선두 싸움을 벌이던 LG와 삼성의 선두 싸움이 분격화됐다.

LG는 앞으로 16경기, 삼성은 17경기를 더 치러야 한다. 따라서 한국시리즈 직행이 걸린 1위 자리를 놓고 양팀의 긴장은 시즌 막판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이날 LG와 기아의 경기에서 LG 선발 투수 류제국은 6이닝 동안 삼진 8개를 솎아내며 2실점으로 호투, 9승(2패)째를 거뒀다. 그가 10승을 달성하면 미국 프로야구에서 뛰다가 한국에 돌아온 투수 중 첫 해에 두자릿수 승리를 거둔 첫 투수가 된다.

LG 왼손 타자 이진영은 이날 3타수 3안타를 치고 4타점을 올리며 대폭발하고 타율을 0.341로 끌어올렸다.

타격 선두 손아섭(롯데·0.347)과의 격차는 6리로 좁혔다.

삼성은 선발 크리스 옥스프링의 역투와 인병마님 김민호의 짜릿한 결승타를 앞세운 롯데에 2안타 영패의 수모를 겪었다.

한화는 홈런 3방을 앞세워 NC를 8-5로 제압했다.

한화 선발 다나 이브랜드는 뒤늦게 3연승을 달리고 시즌 6승(11패)째를 챙겼다.

/김현정기자 hjk.ml@metroseoul.co.kr

승기 잡았어 12일 오후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13 프로야구 LG-KIA의 경기 5회말 2사 2, 3루에서 LG 7번타자 이병규(7)가 싹쓸이 3루타를 친 뒤 최태원 코치와 하이파이브 하고 있다. /연합뉴스

프로야구 전적 12일

■ 잠실

팀				계
KIA	001	001	010	3
LG	140	030	12X	11

[illegible]

■ 문학

팀				계
두산	000	005	027	9
SK	120	103	000	7

[illegible]

■ 대구

팀				계
롯데	000	000	010	1
삼성	000	000	000	0

[illegible]

■ 마산

팀				계
한화	012	021	002	8
NC	000	041	000	5

[illegible]

애리조나 이러다 천적 될라

11일만에 돌아온 류현진 6이닝 3실점 시즌 6패째

류현진(26·LA 다저스)이 1회 징크스를 벗지 못하고 14승 달성을 다음으로 미루게 됐다.

류현진은 12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의 홈 경기에 선발 등판해 6이닝 3실점으로 패전투수가 됐다. 시즌 20번째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했지만 10안타를 허용하며 6개째를 당했고, 평균자책점은 종전 3.02에서 3.07로 높아졌다. 다저스는 1-4로 패했다.

류현진은 또 한 번 1회에 발목이 잡히며 경기를 어렵게 끌고 갔다. 총 투구 수 89개를 기록한 그는 1회(21개)와 2회(17개)에만 38개의 공을 던지며 3실점했다.

1회초 A.J. 폴락, 폴리 골드슈미트에게 연속으로 안타를 맞고 1실점했다. 이어 마틴 프라도에게 병살타를 유도했지만 3루 주자의 득점은 막지 못했다. 1회에 흔들린 류현진은 2회에도 불안한 모습을 보이며 추가 실점을 했다.

3회부터 안정을 되찾아 6회까지 무실점으로 막았으나 타선의 지원을 받지 못해 0-3으로 뒤진 7회초 브랜던 리그에게 마운드를 넘겼다.

이날 경기 전까지 1회 평균자책점은 4.15(26이닝 12자책점)로 가장 낮은 5회 평균자책점(2.08)과 비교해 2점 이상 높았다. 올 시즌 13개 피홈런 중 6개를 1회에 내줬다.

5패째를 당한 지난달 26일 보스턴 레드삭스전에서도 1회에만 4점을 내줬다. 류현진의 1회 평균자책점은 4.42(27이닝 14자책점)로 높아졌다.

부상과 등판 일정 조정 탓에 11일간 휴식을 취한 뒤 마운드에 오른 것도 부진의 원인이었다. 제구가 잘되지 않았고, 직구는 높게 형성됐다. 커브와 체인지업의 각도도 밋밋했다.

류현진은 4일 휴식 후 등판한 12경기에서는 평균자책점 3.30, 5일 쉰 뒤 등판한 9경기에서는 평균자책점 2.12를 기록했다. 6일 이상 휴식 후 등판한 6경기에서는 평균자책점이 4.10으로 치솟았다.

류현진은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내가 못 던진 것은 아닌데 타자들이 잘 노려서 쳤다"며 "허리 통증도 없어졌다. 다음 애리조나와 상대하기 전에 타자들을 충분히 연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시내티 레즈의 추신수(31)는 이날 시카고 컵스와의 홈경기에서 3타수 무안타 1볼넷으로 7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중단했다. 연속 출루 기록은 13경기로 늘렸다.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볼 아니에요?" 류현진(오른쪽)이 11일 경기 2회 타석에서 심판의 스트라이크 콜에 안타까워하고 있다. 4회에 안타를 치며 2타수 1안타를 기록했다. /AP 뉴시스

평양역도대회 오늘 열전 돌입

태극기가 북한 평양에 펄럭일 수 있을까.

대한역도연맹은 북한에서 열리는 2013 아시아컵 및 아시아클럽 역도선수권대회 확정 일정을 12일 공개했다.

한국 선수단은 이날 청춘영 체육관에서 열린 개막식에 참석했으며 13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리는 김우식(주니어 남자 69kg)의 경기부터 공식 경기에 출전한다.

주니어 경기는 14일까지 계속된다. 같은 날 오후 열리는 여자 48kg급 대회를 신호탄으로 성인 대회가 시작된다.

이번 대회는 주니어 대회와 성인 대회를 겸한다.

한국은 이번 대회에 주니어 선수 4명과 성인 선수 18명을 파견했다.

14일 오후 5시부터 시작하는 여자 58kg 종목에서는 주진리(고양시청)의 선전을 기대할 만하다.

선수단의 막강한 금메달 후보 원정식(남자 69kg)은 16일 10시30분에, 천정림(남자 85kg)은 같은 날 오후 5시에 경기를 치른다.

이 두 경기에서 사상 처음으로 평양에 애국가가 울릴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북한 조선중앙통신도 이날 "청년, 성인급 아시아컵 및 구락부(클럽) 력기(역도)선수권대회가 12일 평양의 류경정주영체육관에서 개막됐다"고 간략히 보도했다.

/연합뉴스

암스트롱 '책값 소송' 승소

도핑으로 몰락한 사이클의 '가짜 영웅' 랜스 암스트롱(42)이 자서전의 허위 내용과 관련된 재판에서 유죄 혐의를 벗었다.

11일 미국 일간지 USA투데이에 따르면 암스트롱은 미 연방 지방법원으로부터 "암스트롱의 자서전이 거짓된 내용을 담았다 하더라도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1조의 보호를 받으므로 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받았다.

그의 자서전 '이것은 자전거가 아닙니다'와 '1%의 희망' 독자들은 암스트롱의 금지약물 복용 사실이 밝혀지자 "거짓 내용을 담은 자서전으로 허위 광고를 해 불공정 경쟁을 했다"며 책값으로 지출한 500만 달러(약 54억원)를 돌려달라고 올 1월 암스트롱을 고소했다.

/조선경기자 whan@

안송이 1라운드 단독선두

안송이(23·KB금융그룹)가 메트라이프·한국경제 KLPGA 챔피언십 1라운드에서 단독 선두에 올랐다.

12일 경기도 안산 아일랜드 골프장(파72·6691야드)에서 열린 경기에서 안송이는 버디 7개, 보기 1개로 6언더파 66타를 쳤다. 투어 4년차인 안송이는 지난해부터 실력이 급성장하며 올 시즌 네 차례 톱 10에 들었다.

그는 "지난주 한화금융 클래식 때 컷탈락하고 나서 이번주 대회에는 마음을 비우고 치려고 했다"며 "아이언샷과 퍼트가 좋아 버디 기회를 모두 살렸다"고 말했다. 5언더파 67타를 친 함영애(26·볼빅) 등 5명이 공동 2위를 기록했다. /유순호기자

전국민 기초영어 프로젝트 New English 900

How is the weather today? 날씨에 대해 말하기

긴 대화 훈련

▶ 우리말을 영어로 바꾸어 다음 대화를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A I want to go to the beach. 아침 내내 흐렸어.
I hope it will clear up soon.
B I know. 지금 비가 오고 있니?
A I don't think so, but the days are getting hotter,
so we should be okay by the afternoon.
B 아마 오늘 오후에는 날씨가 틀림없이 갤 거야.

정답 It's been cloudy all morning. / Is it raining now? / It'll probably clear up this afternoon.

New English 900 공식 카페 e900.co.kr
출처: New English 900 Vol 2

생생영어팁

▶ It's very hot and muggy.
날씨가 매우 덥고 습해서 숨이 턱턱 막혀요.

우리나라의 여름 날씨를 말할 때 종종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덥고 습한 날씨, 그래서 숨이 턱턱 막힐 정도의 끈적끈적한 날씨를 말할 때 muggy를 씁니다. 또 습도를 가리켜 humidity라고 하는데요, The humidity during summer in Korea is very high.라고 하면 "한국은 여름에 습도가 상당히 높다"는 뜻이 되는 거죠. 이때 high(정도가 높은, 강한) 대신 intense(날씨가 혹독한, 강렬한)라는 단어도 자주 사용합니다.

주의해야 할 부사

▶ already, still, yet, too, enough는 의미와 쓰임에 주의해야 한다.

already 이미, 벌써 still 여전히	be동사, 조동사 뒤에 위치, 일반동사 앞에 위치
yet 아직	부정문, 의문문에만 쓰고 문장 끝에 위치
too 너무	형용사 앞에 위치
enough 충분히	부사로 쓰일 때는 형용사 뒤에, 형용사로 쓰일 때는 명사 앞에 위치

▶ 예문장으로 핵심문법 학습 _ 다음 문장을 두 번 읽어보세요.

1. They are already here. 그들은 벌써 여기 왔어요.
2. I haven't seen the movie yet. 그 영화 아직 못 봤어요.
3. The cell phone is too big. 그 휴대전화는 너무 커요.

TOEIC ▶ ETS TOEIC Test RC 공식실전서 1000

01 In the decade ______ it was founded, Liu and Wang Corporation has become a legend in creative advertising.
(A) since (B) almost
(C) however (D) therefore

02 Under the direction of James Pak, the orchestra has become one of the most highly ______ performing arts groups in the region.
(A) intended (B) overcome
(C) regarded (D) impressed

01 설립 후 10년간, 리우앤왕 사는 창의적인 광고 분야에 있어 전설이 되어 왔다.
해설 빈칸은 문장 구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필요한 자리인데 이러한 역할을 하는 접속사는 (A) since(~한 이후로) 밖에 없다.
어휘 decade 몇 10년 found 몇 설립하다 legend 몇 전설 creative 몇 창의적인 advertising 몇 광고
정답 (A) since

02 제임스 박 씨의 지도 아래 그 오케스트라는 그 지역에서 최고로 꼽히는 예술 공연 그룹 중 한 팀이 되었다.
해설 상당하게 평가되는 공연 그룹 이 적합하므로 (C) regarded를 써야 한다.
어휘 direction 몇 지시, 지도 intended 몇 의도된 overcome 몇 극복하다 몇 극복된 impressed 몇 감명 받은
정답 (C) regarded

TOEIC Speaking ▶ ETS TOEIC Speaking Prep Book

Part 4. 제공된 정보를 사용하여 질문에 답하기

숫자 읽기

Part 4에서 제시되는 표에는 시간, 날짜, 금액 등 숫자가 자주 등장합니다. 숫자 표현은 쉽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이기도 하므로 정확히 읽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날짜

2000년 이전 연도는 두 자리씩 끊어서 읽고, 2000년부터는 two thousand~로 읽습니다.

1983	nineteen eighty-three	2012	two thousand twelve

월, 일, 요일 등은 쓰여진 순서대로 읽으며, 일(날짜)은 서수로 읽습니다.

Feb. 1	February first	Mar. 2	March second
November 3	November third	Oct. 12, 2000	October twelfth two thousand
May 5th	May fifth	September 31	September thirty-first
Wed. Dec. 23	Wednesday December twenty-third		

Tip 날짜 끝의 숫자에 th를 붙여서 읽으며 1, 2, 3의 서수는 first, second, third로 따로 암기해야 합니다.